

고성 문화





장승에게 통일의 길을 묻다

예로부터 장승은 재앙과 악귀를 막고 소망을 기원하는 고유의 민속신앙의 수호신이다. 고성문화원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고성통일전망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금강산 대장군과 충북청양 칠갑산 여장군의 장승혼례식이 치러지고 해마다 고성통일전망대에서는 통일장승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고성 문화



차례

Contents

인사말

발간사 (주기창, 고성문화원장)	6
축간사 (함영준, 고성군수)	8
발간 축하메세지 (이양수, 국회의원)	9

특별기고

신뢰, 공감,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김일용, 고성군의회의회장)	13
작금의 쓸쓸한 교단을 바라보며! (허옥,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8
우리마을 지킴이 비상소화 장치 (서강원, 고성소방서장)	21

원로를 찾아서

고성에서 처음으로 모교에 장학금 기탁해... (어성훈, 간성읍 봉호리 출신)	27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윤근호,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노인대학장)	29
고성농협의 산 증인 윤두환 씨 (윤두환, 간성향교 원로회장)	31

오피니언 칼럼

향교와 일상생활 (황재철, 간성향교 전교)	35
명태의 노래 (김현숙, (주)고성명태 대표이사)	38
개구리가 없어서! (권성준, 전) 고성중·고등학교 교장)	44

차례

Contents

향토문단

- 조선시대 한시에서 미시령을 찾다 _____ 51
(한창영. 고성학연구소장)
- 이성선 시인 아카이빙을 마치며! _____ 63
(이선국. 이성선 시인 기념사업회 대표)
- 돌이키는 마을(김철수. 고성학연구소 연구원) _____ 71

문화탐방기

- 보석의섬, 제주도로 떠나다(고성문화원, 문화탐방) — 77
(최선호. 수성문화제 홍보이사)

문화활동 이것 저것

- 효공연 우리가락 한마당 잔치 _____ 83
- 간성향교 성균관 유도회 간성지부회장 선출 선거 — 85

시(詩)편

- 능파대. 설달의 노을(최형운. 문화원회원) _____ 89
- 수바위. 능파대(김춘만. 문화원 이사) _____ 90

향토문화예술 지상 갤러리 _____ 93

문화원소개 및 회원가입 _____ 115

2023 고성문화 제10호



인사말

발간사 06

주기창
고성문화원장

축간사 08

함명준
고성군수

발간 축하메세지 09

이양수
국회의원



文化院長 朱基暢

030

TEL: 03-3463-1111

030



發刊辭(발간사)

朱基暢
고성문화원장

군민의 삶과 質 향상에 대한 地域文化의 試金石으로
문화예술 가치를 高揚시키고 自矜心を 高趣시키는 고성문화원입니다.

고성문화원은 산, 바다, 호수, 강이 모두 어우러진 天惠의 寶庫이며 청정 문화 遺産과 觀光資源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지역의 군민들로 하여금 문화생활을 享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郷土 史料 發掘 및 郷土藝術 人들에게 支援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高城文化院은 郷土史料 發掘과 郷土藝術 人들에게 支援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성문화원이 우리 고성군민들의 대표축제인 ‘수성문화제 4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성문화원은 郡民들의 문화예술 享有를 위하여 갖가지 문화예술 부문 公募事業을 통해 많은 豫算을 確保하여, 活力있는 文化藝術을 發展시키는데 曁신의 努力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高城文化”10호 발간에 적극적으로 支援해 주신 함명준 고성군수, 김일용 고성군의회 의장님께 感謝드리며, 책자 발간에 玉稿를 보내주신 各界人士와 고성문화원 會員, 그리고 그간編輯에 힘을 기울여 주신 崔善鎬 고성학연구소 고문께 다시 한번 感謝드립니다. 새해에는 고성군민들의 마음속에 품으신 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축간사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뿐만 아니라 군민의 문화 수요와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원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올해로 20년째 맞이하고 있는 『고성문화 1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명준
고성군수

문화기록서 『고성문화』는 당시대 인간, 민초들의 삶과 문화, 관습, 예술, 자연, 상황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가의 글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고성문화』는 고성군의 귀중한 전통과 문화를 기록하는 종합 역사서로 평가받을 것이며 『고성문화 10호 발간』의 그 의미와 가치를 군민과 함께 평가하고 싶습니다. 선사시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언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뇌는 정보를 망각하므로 불완전하였기에 인간은 동굴, 바위와 같은 매체에 그림을 그려 소통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언어와 문자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기록의 시작은 곧 지식의 축적이었고, 도서관의 탄생도 예고했습니다. 고성군도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문화복지센터등 문화예술지식 공간 확충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원과 함께 협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성군의 귀중한 사료가 될 『고성문화 10호』를 축하드리며, 발간을 통해 군민의 향토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써 그 역할을 다하기를 기원합니다.

축간사

먼저 고성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고성 문화」 제10호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성군은 우리나라 최북단에 자리잡아 산, 바다, 강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오래전부터 우수한 문화예술의 발전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

특히 1984년 설립된 고성문화원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문화원으로, 오랜 세월동안 고성의 향토문화 보존 및 전승, 전통문화 선양, 문화복지 증진, 지역 내 문화예술인 교류 등 고성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성문화원이 격년제로 발간하는 「고성문화」는 고성의 향토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향토문화 가치 재조명을 통해 지역 정체성 계승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성문화」를 통해 독자들은 고성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배울 수 있고, 고성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인 선조들이 남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와 혁신을 훌륭히 이뤄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열 번째 출간을 맞은 「고성문화」가 앞으로도 고성의 문화와 예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수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 도시 고성군'이 이제 지역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작품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 고성군'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고성문화」 제10호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주기창 원장님을 비롯한 고성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성문화



2023 고성문화 제10호

특별기고

신뢰, 공감,
군인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13

김일용
고성군의회 의장

작금의 쓸쓸한 교단을
바라보며! 18

허욱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우리마을 지킴이
비상소화장치 21

서강원
고성소방서장

신뢰·공감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주민의 대변자로 견제와 균형 역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행정의 정책 의결기관으로서 제9대 고성군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김일용
고성군의회 의장

고성군의회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추진하여 왔다.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생생한 의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해 온 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바탕을 둔 군민들과의 합리적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찾아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참다운 모습이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분권 2.0 시대에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주민의 뜻을 모아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군 의원 모두의 역할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군민과 공감하고 행정과 소통하는 풀뿌리 의회를 정착시키고자 고성군의 가장 큰 현안인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방과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농축산 어업의 소득 창출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관련하여 9대 고성군의회(2022. 7월 ~ 현재)가 이뤄낸 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 및 예산심사기능 강화

⇒ 조례안 심의 66건(의원발의 조례 15건 포함), 예산심사 7회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법규범의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제·개정된 몇몇 조례를 나열해 보면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고성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아야진 금강 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군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사회복지, 일반행정, 투자유치, 경제진흥, 농수산 발전, 보건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가 제·개정된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결과이다. 한편, 예산안 심사는 2022년 2회, 3회 추경을 포함, 2023년 당초 및 1회, 2회추경, 예비비승인안(2022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2022년 회계연도)까지 총 7회에 걸쳐 추진하였는데 건전 재정 운영의 기초 아래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 생활 안정 도모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성장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추진하였다.

관련하여 2023년도 당초 예산의 경우,

- 일반공공행정 22,947백만원(5.45%),
 - 공공질서 및 안전 3,545백만원(0.84%),
 - 교육 8,792백만원(2.09%),
 - 문화 및 관광 58,492백만원(13.89%),
 - 환경보호 55,820백만원(13.25%),
 - 사회복지 77,488백만원(18.40%),
 - 보건 4,256백만원(1.01%),
 - 농림해양수산 74,926백만원(17.79%),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427백만원(1.29%),
 - 교통 및 물류 11,983(2.85%),
 - 국토 및 지역개발 30,077백만원(7.14%),
 - 예비비 및 기타 67,443백만원(16.01%) 등,
- 13개 기능별 총 421,19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감시기능 강화

⇒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정·건의 요구 239건

행정사무 감사는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확인함으로써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 추진사업의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을

효율적인 수행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들의 전문성 확보이다. 이와 관련 고성군의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효과적인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의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금년도 감사 실적을 살펴보면 군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등 24개 부서에 대해 6.8~16(9일간)까지 총 296건(공통 13건, 실과 소·직속 기관·사업소 275건, 읍면 8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239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건의를 요구했다.

3. 군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위한 감시 견제기능 강화

⇒ 현지시찰 3회/22개소, 군정질문 3회/11건, 간담회 10회

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현지 시찰을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점검이 매년 상·하반기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지난해 하반기(2회) 13개소, 금년도 상반기(1회) 9개소 총 22개소에 대한 현지 시찰이 진행되었다.



그중 금년도 사업장 시찰 현황을 보면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현황」, 「아야진항 어항개발 사업현황」, 「고성블링센터 건립 현황」, 「자활근로 사업장 운영 현황」, 「거진지역 어민마을회관 및 마을공동작업대기소 신축공사 사업현황」, 「화진포 셔우드홀 문화공간 조성사업 현황」, 「해맑은 미소마을 조성사업 운영현황」, 「대진리(산68번지) 산림훼손 현장 시찰」,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 현황」 등이다. 또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정례회 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답변을 듣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 3명의 의원으로부터 총 10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으며, 금년도 제3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1명의 의원으로부터 1건의 군정 질문에 대해 부군수와 관련 부서장들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한편 의정활동의 협의 및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청취를 위하여 매월 의회·행정 정례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군민과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처럼 고성군의회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신뢰·공감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견제와 균형”의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힘써왔다. 의회의 주인은 바로 군민이라는 진리를 늘 되새기며, 모든 의사 결정 시 군민 입장을 중심에 두는 군민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지방분권 2.0 시대, 강원특별자치도란 역사적 대전환기에 발맞춰, 더 강화된 분 권력과 자치력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선두에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이란 역사적 소명을 다하도록 더욱 분발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도 채찍과 함께 응원을 당부드린다.

昨今の素晴らしい教壇を 바라보며 ! 지금 교육 현장을 회생시킬 기회

어두운 터널에 갇힌 암울한 교육 현장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인내의 임계치를 넘은 선생님들 목소리가 활화산 되어 번져가는 모습이 아프게 다가온다. 실제로 지금 학교 현장과 교실 분위기는 과거 우리 학창 시절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충격을 넘어 공포마저 느낄 지경에 이르렀다.



허 옥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책,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가 민원과 맞닥뜨리면서 고민 상담, 고충 토로를 마주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로 몸져눕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선생님들도 부지기수다. 마스크에 오르내리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질 내용들은 지역과 학교를 막론하고 현장에선 전혀 낯설지 않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남편이 법조인인데 어디서 함부로 법을 논해”

“아이는 낳아봤냐.”

“선생이 옷 입고 다니는 게 뭐 그러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내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거 다 아시죠.”

“교장 얼굴 봐서 참는 거야.”

“김 선생님 결혼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업결손 나지 않게 방학 중에 날짜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출산은 방학에 맞춰서 수업결손 없게 하는 거 알고 있죠.”

“임산부가 왜 담임을 맡았냐.”

“콩밥 먹이겠다.”

누구든 해서는 안 되는 편견과 배제의 말들이 수위 조절 없이 교사에게 내뱉어지는 현실,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는 학부모들 행태는 단골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무지의 학부모를 상대하는 우리네 선생님들은 상처 입고, 멘탈이 붕괴 되고, 의욕이 꺾인다. 거기다 업무 과다에 아이들로부터도 공격, 무시, 업신여김을 당하곤 한다.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불쌍하고 가엽기 그지없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 들을 학부모들은 왜 못 보는 건지, 오로지 제 자식만이 눈에 들어오는 걸까? 내가 교감, 교장으로 근무했던 학교에서 일어난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겠다.

●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 가정방문을 갔는데 편부가정, 알코올중독 아버지에게 심한 욕만 듣고는 겁이 나서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돌아왔다며, 아이 걱정을 하던,

2학년 허○○ 담임선생님

● 아이가 옆 반 친구들과 싸움이 나서 부모님께 전화로 학교에 오셔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다 했더니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학교를 오라 가라 하나며 쌍욕과 함께 ‘너희 맘대로 하라’며 언어폭력을 하는 학부모를 어떻게 하나며 울먹이는,

1학년 김○○ 담임선생님

● 학급에서 아이들끼리 싸움이 일어나 중재하는 과정에 멧들고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여학생 손목을 세게 잡아 손목에 멍이 들었다고 고발당한,

학생부 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 깨웠다고 고발당한 선생님, 이쁘다며 머리 쓰다듬었다고 신고당한 선생님, 학부모 전화를 안 받았다고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선생님, “도끼로 피바다를 만들겠다.” “밤길 조심해라.”와 같은 협박,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목도하고 있는 무너진 교육 현장 현실이다.

교사와 아이들의 웃음이 그득해야 할 교정이 어찌다 이렇게 무참히 유린 되었을까?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교직을 떠난 선생님이 6만여 명, 자살한 선생님들이 100여 명, 명예퇴직과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수가 6천 5백여 명이다. 교사의 학교 탈출이 거대한 행렬을 이루고 있다. 보람과 긍지를 갖고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삶을 터전을 일궈 온 나로서는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며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아파도 아픈 티조차 내지 못한 채 인고의 세월을 감내하신 선배 교사들 뵈면 면목도 없다. 2023년 7월 연일 최고의 기운을 갈아치우는 한여름 뜨거운 피약벌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수많은 선생님들이 서울 광장에 모였다. 교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열정과 분노가 한데 어우러져 용광로보다도 뜨거운 외침으로 솟구쳐 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여태껏 버텼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교육이 힘을 잃고 휘청거리고 있다. 모름지기 교육이 죽으면 개인의 도덕적 의지는 약화 되고 사회의 집단지성도 마비되면서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져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끝없는 나락의 길로 떨어지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학교를 잠식해오던 나쁜 관행을 타파하고 믿음과 신뢰의 학교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 제물이 바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못한 선생님들의 억눌림, 한숨, 울음, 몸부림을 이제 우리 사회는 받아 안아야만 한다. 험난한 가시밭길이 되어버린 교육 공간에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많은 품을 들이며 현장을 지키는 선생님, 흔들리고 휘청거리면서도 교단에서 힘겹게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을 만나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종종 목격한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기적을 만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힘이다. 난 그들을 뜨겁게 응원한다.



우리 마을 지킴이 비상 소화장치

비상 소화장치라는 말은 언뜻 쉽게 풀이되는 용어 같지만 실상 일반인들에게는 그 단어와 실물이 쉽게 매칭되기 어려울 수 있을 듯하다. 보통 비상〔非常〕이란 긴급한 상황을 말하며, 소화장치라는 용어는 불을 끌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다시 말해 소방호스 등을 소방용수시설(소화전)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의미한다.



서강원
고성소방서장

사실 대부분 사람은 이 장치의 사용 방법은 모르지만 정실물 형상을 보고 나면 “분명 오고 가며 많이 봐왔던 물체인데.”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은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화장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비상 소화장치는 누가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 최근 이와 같이 우리 마을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걸까? 우선 비상 소화장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화재 발생 초기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마을 주민이 누구나 활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장치이다. 비상 소화장치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비상 소화장치와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가 그것이다. ‘일반비상 소화장치’는 비상 소화 장치함에 적재된 호스와 개폐장치를 꺼내 인근 소화전에 직접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 비교적 구형 장치라면,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는 말 그대로 비상 소화 장치함 자체에 호스릴을 내장하고 있는 비교적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신형 장치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사용법은 어떻게?

‘일반비상 소화장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 소화 장치함을 열어 소방호스를 꺼내어 소화전에 연결한다. 둘째, 함 내부 개폐 장치를 활용해 소화전을 개방한다. 셋째, 화점으로 소방호스를 가져가 관창을 열고 물을 방수 한다. 다음으로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 소화 장치함을 열고 잠금장치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한다. 둘째, 불이 난 곳까지 호스릴 호스를 전개한 후 관창을 열고 방수 한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호스릴 비상소화장치는 애초에 관창과 호스가 미리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이라 굳이 소화전에 연결하지 않고 관창을 잡고 화점 방향으로 끌고만 가 방수만 하면 되므로 일반 비상 소화장치에 비해 원활한 화재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비상 소화 장치함 외부에는 사용설명서가 적혀 있어 비상시에 참고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주민 누구나 쉽게 조작해 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의 비상 소화장치 설치 상황은 어떻게? 우리 고성군의 경우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설치 개수는 16개에 불과하였다. 이후 속초, 고성 대형산불을 기점으로 2020년 18개, 2021년 213개, 2022년 35개를 설치 하는 등 매년 설치 개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 금년에도 58개를 현재 추가 설치 중이다. 설치 장소 또한 초반에는 산림 인접 마을 중심에서 최근에는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전통시장, 상가 밀집 지역 등 읍·면 전역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다. 이처럼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화가 곤란한 지역 위주로 설치되는 이 장치의 특성상 그 장소가 본인 집 근처 또는 개인 사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혹 주변 경관을 해친다거나, 내 집 앞이라 눈에 거슬린다는 등의 사유로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매년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고성-속초 대형산불은 임야 1,757ha, 주택 401채, 축산시설 925곳 등을 앗아간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관내 대형 재난이었고,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 누구도 우리 지

지 못했듯, 앞으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 또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산림 화재 발생을 대비해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대비할 수 있고 실효성이 가장 높은 시설이 바로 비상 소화장치이다. 이 장치로 인명피해 예방은 물론 작게는 우리 집, 우리 마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며, 크게는 고성군 전체의 산림과 문화재를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니, 주민 모두 대의적인 틀에서 설치에 적극 협조 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실제로 올해 봄 강릉 대형 산불 당시 비상 소화장치의 효과는 크게 입증되었다. 강릉시 저동의 일흔이 넘는 어르신이 직접 마을에 설치된 비상 소화장치를 사용하여 자신의 민박집을 지켰고, 인근 산림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아냈다. 또한 강릉시 문화재인 경포대, 방해정도 50m 길이의 호스를 갖춘 비상 소화장치 5개로 살수 작업을 벌여 화마를 피했다. 이 외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듯 과거부터 비상 소화장치를 활용하여 산림 및 마을을 지켜낸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많은 주민이 우리 마을 비상 소화장치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서 서두에서 말하였듯이 이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디서든 비상 소화장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평소 내 주변 자주 다니는 길에 비상 소화장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비상 소화장치가 있다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사용법을 숙지하게 된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로부터 내 가족, 주변 이웃의 안전뿐만 아니라 산림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성문화

2023 고성문화 제10호



원로를 찾아서

고성에서 처음으로,
모교에 장학금 기탁해... 27

어성훈
간성읍 봉호리 출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29

윤근호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노인대학장

고성농협의 산증인
윤두환 씨 31

윤두환
간성향교 원로회장

원로를 찾아서 1 고성에서 처음으로 모교에 장학금 기탁 해...

고성문화원 원장실에서 만난 간성읍 봉호리에 사시는 어성훈(魚星勳) 1936년생 올해 나이 87세이다. 그간 살아온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인터뷰를 요청하니 흔쾌하게 맞아주었다. 참 오래간만이었다. 만나본 지가 벌써 40여 년이 지났다.



어성훈

간성읍 봉호리(蓬壺里)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간성시내에서 2km 정도 북동쪽 북천 하구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엔 주로 어(魚) 씨와 윤(尹) 씨가 살고 있다. 1950년대 6.25전쟁 발발 이후 고성군 유일한 학교인 동광농고에 다니다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입대 후에도 아버지가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학교 등록금을 학교에 꼬박꼬박 내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거머쥐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 후에 고성군농협 군지부에 1962년도 입사하였다. 농협 창설자나 다름없었다. 금융인으로서 처음에는 읍면 지도원으로 출발, 협동조합 운영에 즐거운 마음으로 농협에서만 15년을 근무했으며 그 후 신탁에서도 근무 모두 33년의 공무를 무사히 마치고 1994년도에 퇴직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으면 취업이 아마도 안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희생적인 학구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감사히 여긴 어성훈씨는 은혜를 갚기 위하여 모교인 동광농고에 1962년도 처음으로 한 달 치 봉급(당시 3,000원)을 익명으로 장학금을 내게 되었다. 1994년까지 퇴직 후 2~3년까지 매년 1회씩 보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당시 학교에서 돈을 집행하기 위해선 기탁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그래서 고성경찰서 정보과에 심00 형사라는 분이 조사를 의뢰하여 밝혀지자 장학금을 기탁 하는 사람이 농고 출신이라는 것만 밝혀지게 되었다. 그 후에 장학금을 끊게 되었다고 한다. 어(魚) 원로는 당시를 회상하시며,

“3회 장학금”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그 뜻은 애국(愛國), 애농(愛農), 애노(愛勞)라고 정하였다는 것, 이런 이야기의 미담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의 동광농고 최성규(작고)동문회장의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끝으로 최근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질문에, "1994년도 퇴직 후 서울에서 생활하였으나 몸이 고되고 아파서 매일 약을 먹었었다며, 이제 고향 집에 내려와 텃밭을 가꾸며 소일을 보내고 있으니까 씻은 듯 아픈 곳이 없고 약도 먹고 있지 않으니 이것이 다 물 좋고 산이 좋은 우리 고장의 혜택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웃음으로 답했다.

원로를 찾아서 2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고성군 거진읍 송포1리에 거주하는 윤근호(尹根浩) 1933년생으로 91세이다. 원로는 오늘도 쉼 없이 사회활동에 왕성히 움직인다. 1950년대 6.25 돌발 이후 수복이 되어 1962년부터 마을 이장과 단위 조합장 일을 하면서 마을에 비료와 영농자금 등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도맡아 했다. 그리고 이 무렵 처음으로 거진읍사무소에 촉탁으



윤근호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노인대학장

로 들어가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 아마 지금 생각하면 마을 이장을 10여 년간 재직하면서 굵은 일을 도맡아 온 것 같다. 그 후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란 말이 있듯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배우기 위하여 간성향교 유림으로 들어가 “의전수석”의 중임을 맡아 지방도 쓰고, 대축도 하고, 어르신들에게서 흘기 쓰는 한문도 익혔다.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010~2013년까지 간성전교(34대)을 3년 동안 재직하다 마쳤다.

또한, 2017~2021년도까지는 마을 노인회장과, 사)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거진읍 분회장직을 맡았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하는 일은 2023년도 사업으로 고성군 노인대학에선 약 28명 정도가 수강생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의 내용은 레크레이션, 소비자 피해 예방, 민요,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노후 건강관리, 자살 예방, 치매 예방, 관혼상제, 인문학, 100세를 건강하게, 대학장과의 시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 회장에게 노후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였다. 윤 회장은 무엇이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라 답했다. 특별히 보약은 먹는 것이 없다고 했으며, 인문학 서적을 자주 읽어 본다고 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정이 보약이 된다고 했다. 노인들은 성격은

현대화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접목하고 적응하여 성격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타고난 성격을 아무리 고치라고 하여도 50% 고치기 힘들다며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저 좋은 마음으로 농촌에서 텃밭을 조금 가꾸며 밭두렁 논두렁을 오가는 일을 하고 있단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즐거운 자리에서나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한두 잔 한다고 하며, 담배는 젊었을 때부터 아예 피우지 않았으며, 술을 맹목적으로 먹는 일이 없다고 했다. 사람으로 태어나 5륜의 하나인, 즉 “예(禮)”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안 되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란 말을 강조했다. 늘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로를 찾아서 3 고성농협의 산 증인 윤두환 씨 !

'90세 노령에도 건강을 위해,
매일 6,000보 걷기 생활화'



윤두환
간성향교 원로회장

고성군에서 9대가 살아온 고성 토박이 윤두환(尹斗煥) 원로는 올해에 1931년생으로 93세이다. 왜 정시대 때 거진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체신 이원 양성소를 다녔던 거진읍 봉평리의 윤 원로는 왜 정시대와 인공시대에 살았던 세대로서 고성 역사의 산 증인이다.

해방 후 고성은 공산당에 의해서 모든 개인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하게 감시, 통제, 억압하는 일당 공산주의 사회체제였다. 출신 성분과 특히 논, 밭을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반동분자로 낙인찍혀 진학, 취업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던 때였다. 천지가 암흑으로 뒤덮인 시절이었기에 윤두환 원로 또한 전쟁 준비를 위한 인민군 징집을 피해 두만강 옆 함경북도 회령까지 가 있다가 탈출하여 제주도에서 훈련 받고 국군 28사단 창설 요원으로 인사업무를 담당, 병장으로 전역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임 씨, 서 씨, 화포리에 윤 씨가 주로 살고 있는데 전, 고성군의회 의장, 현재 고성문화원 부원장인 윤영락 씨가 종손이라 했다. 6.25사변 이후에 공직에 임명되어 거진면사무소 재무계(당시 면장 김운성)에서 일을 하다가 이후 1962년도에 농협이 창설되면서 개척원 직책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에 함태훈씨가 조합장이었으며, 윤두환 원로는 거진면, 현내면 2개 면을 담당하여 마을 이장과 함께 농사 영농자금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연말 결산 때가 되면, 이자 계산 등, 회계 처리가 서투른 이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로 다니며 열심히 뛰고 또 뛰어야만 했다. 12월의 매서운 날씨와 거친 길에 농협 개척원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하였다. 현내면 마차진리에서 마달리(당시 이장 임익선)로 넘어가

는 길은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오솔길로 돌고 돌아서 자전거를 돌려 메고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다. 화곡리 이도선 이장은 그 모습을 보고는 “오늘 내 생일인데 술 한잔하고 가세요?” 라는 말에 메고 간 자전거를 마당에 놔두고 집에 들어갔다 나오니 동네 아이들이 시골서 귀한 자전거에 호기심을 가졌고, 자전거 자물쇠를 열고는 타다가 바퀴를 90% 꺾어 놓아 집까지 힘들게 메고 갔다고 웃었다. 그 후에 춘천 사무직 시험에 응시하여 강원도에서는 2명이 합격하였고, 그중 한 명으로 영광을 얻게 되었다. 개척원 신분에서 사무직으로 전보되어 전표 등을 발행하고, 조합원들에게 생활용품을 조달하는 구매계 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직장이 곧 생명이던 시대였기에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다 한 것 같다. 밤늦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어디에서 술추렴이나 하지 않나 해서 아내는 당시 간성에서 유명한 술집이었던 “백마옥”을 찾아봤다고 했다. 직장 문화도 군부 독재 문화와 비슷하였다. 박OO상무가 있었는데 까다롭기가 유별나 밤새도록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 시대에는 밥줄이 떨어지면 큰일 날 거라 생각하고 죽을 각오를 다 하여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며 내 한 생명을 다 바치리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였다. 좋은 직장, 성과를 만드는 직장을 지향하는 직장문화와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이직할 수 있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시절에는 직장이 참으로 귀하던 시대였다. 1962년도에 농협중앙회에 입직하여 정년퇴직하고, 2000년도에 거진읍 봉평리에 귀향하여 집을 짓고 정착하여 농토를 가꾸고, 선조들의 산소를 돌본다고 했다. 또한 간성향교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간성향교 업무의 지원과 자문역할을 하며 간성향교 원로회장직을 현재까지 맡고 있다. 세심(洗心)하며 살아간다! 집 화단에 1년 내내 화사한 꽃들이 만개하도록 정원을 가꾸기를 즐기며 매일 같이 집 주변 도로와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몸과 마음을 비우며 세심(洗心)한다고 하였다. 윤 원로는 지금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루 6,000보씩 걷는다. 부친께서는 101세로 장수하셨다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부지런히 부친께 배운 쌀알 한 톨이라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근검, 절약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취재: 최선호)



오피니언 칼럼

향교와 일상생활 35

황재철
간성향교 전교

명태의 노래 38

김현숙
(주)고성명태 대표이사

개구리가 없어서! 44

권성준
전) 고성중.고등학교 교장

향교와 일상

향교(鄕校)란?

- 향교라는 어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국 춘추(春秋)시대 정(鄭)나라 양공(襄公) 31년 B.C 542년으로 전해진다. 조선(朝鮮) 시대의 공립교육 기관으로 오늘날의 중·고등학교 과정이다.
- 유교(儒敎)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5덕을 인격도야의 기본으로 한 수 제치평(修齊治平)을 실천하여 도의(道義) 사회와 인간 윤리를 수립하고 교화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 규모에 따라 교관인 종6품 교수, 정9품 훈도가 파견되며 원칙적으로 서당을 마친 16세 이상의 지방 자제(子弟)로 소학시험에 합격하면 차별 없이 입학이 가능하며 목은 90명, 도호부 70명, 군50명, 현 30명의 정원이 수용 되었으나 정원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실정에 따라 증원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 조선 시대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중앙 최고의 교육기관은 성균관(成均館)으로 승보시(升補試)에 합격하면 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 성균이란 인재로서 아직까지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루고 풍속으로서 아직 가지런하지 못한것을 고르게 한다는 뜻으로 국가발전의 이념인 철학을 여기에서 정립하여 국가 경영의 주체인 인재(人材)를 육성하는 곳을 성균관이라 했다.
- 향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유교 경전·성리학·역사·문학·역법·산술·의술·실용 지식 등이며 유교의 경전은 사서(四書)오경(五經)으로 사서는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이며, 오경은 시경(詩經)·서경(書經)·역경(易經)·예기(禮記)·춘추(春秋)를 일컫는 말로 한정된 지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동국 황재철
간성 향교 전교

간성(杆城)향교

- 우리나라의 향교는 고려 17대 인종 5년(1127년)에 각 군현에 설치되기 시작한 공립 교육기관이다. 간성 향교는 그보다 약 300년 후인 조선조 세종 2년(1420년) 집현전(集賢殿)설치와 학제정비당시 간성군 용연동(현 상리 쇠릉골)에 창건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 재건 되고 1950년 한국전쟁 때 다시 소실 되어 그 전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 현 위치인 간성읍 진부령로(杆城邑 陳富嶺路) 2659 규봉산록(圭峰山麓)에 재창건 된 것은 인조 18년 1640년 이며, 수복(收復) 후 1956~연차적으로 증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당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에는 전국에 329개의 (대도호부·부·목60·군현 269) 향교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간성 향교는 지방 문화재 제104호(1985. 1. 17)로 지정되었다.

서당 (書堂)	마을 단위의 초등 교육기관 개인 마을의 재력가들이 훈장을 초청하여 운영하는 사립교육기관 7~16세 남자아이
향교 (鄉校)	서당을 마친 유생들이 중등교육을 받는 지방의 공립 교육 기관. 공자를 비롯한 중국, 우리나라 유학자 위패 봉안 (39位) 춘추석전(釋奠) 봉행(奉行)
서원 (書院)	조선 중기 이후 지방의 양반들이 세운 사립교육 기관. 조선 중종 38년(1543) 건립된 첫 서원. 경북 영주 소수서원 우리나라 유학자의 위패(位牌)봉안
성균관 (成均館)	대학에 해당하는 중앙의 최고의 교육기관

※서원의 세계 유산등재

제43차 세계 문화유산 위원회 유네스코 세계 유산등재 9개소 2019.06.30.

경북	영주	소수서원	전남	장성	필암서원
	안동	도산서원	전북	정읍	무성서원
	안동	병산서원	충남	논산	돈암서원
	경주	옥산서원	대구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 공립학교인 향교와 달리 향촌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사설 학교, 조선 시대 건축물로서 성리학의 지역적 전파를 이끌고 정형성(定型性)을 갖춘 건축 문화재로 탁월한 보편성 가치가 인정됐다.

석전(釋奠)이란?

- 성균관(향교)에서 선성(先聖)·성현(聖賢)·선사(先師)에게 제사(祭祀)지내는 의식으로 학문과 인격·덕행과 사상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숭모하고 소중히 여기며 스승을 높이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기풍을 체득하기 위하여 매년 2.8 상정일(上丁日) 또는 기진일(忌辰日 양5. 11) 탄강일(誕降日 양 9. 28)에 문묘(文廟)에서 대제(大祭)를 봉행(奉行)한다.
- 문묘에 배향(配享)된 인물은 한 시대의 학문을 크게 이루고 세상에 두루 영향을 미친 분들이다. 다시 말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는 분들이다. 마땅히 숭상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 발전시켜야 한다.



명태의 노래

거진항, 밤새 잠을 이룰 수 없다. 정박한 어선들의 한숨이 텅 빈 적막한 부두를 휘감는다. 가로등 불빛은 밤바다로 흘러내려 차갑게 일렁이고, 파도 소리 처연하다.

명태가 사라졌다. 한 해만의 겨울이려니 그럴 수도 있을 거라 했다.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다.

그러나 돌아올 줄 모르는 명태다.

* 그 시절 고성, 명태의 시간 (60~80년대 초)

거진항, 포구는 밤새 잠들지도 못한다. 어선들의 설레는 숨소리와 속삭이는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새벽 2~3시, 칠흙 같은 어둠과 흑한 추위를 뚫고 여기저기에서 찾아드는 장정들의 두런거림으로 금세 온기로 가득하다. 그물과 낚시 등 선구를 한가득 싣고 아낙들의 배웅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선착장을 출발하는 어부들의 새벽, 어둠 속에서도 구릿빛인 그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오롯한 청춘 같은 시간으로 가슴이 부푼다.

바다 한가운데 흔들리는 뱃머리에서,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등뺨 담아 해장을 한 후, 힘찬 노랫소리 맞추어 걸어 올리는 그물과 낚시에는 보람의 땀방울로 번뜩거리는 명태 떼들이 춤을 춘다.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며 물에 남은 가족들이 기다리는 부두로 돌아오면 언제나 어깨가 으쓱한다. 간판 위에서 그물을 내리고 던지는 사람, 그물망 속에서 서로 안고 뒹구는 명태를 떼어내는 사람, 리어카로 망태기로 고무대야로 나르는 사람..... 명태더미 사이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경매꾼, 눈치챌세라 눈으로 손으로 침묵의 소리를 외치는 입찰꾼, 어디론가 바빠 걷고 달리는 사람들, 왕왕 울려대는 합성들..... 그러나 노을이 질어오는 부두의 풍경 속 주인공은 오롯이 명태이다. 거리도 온통 명태다. 리어카에서 넘칠 듯 출렁이는 명태가, 아낙들의 머리에 인 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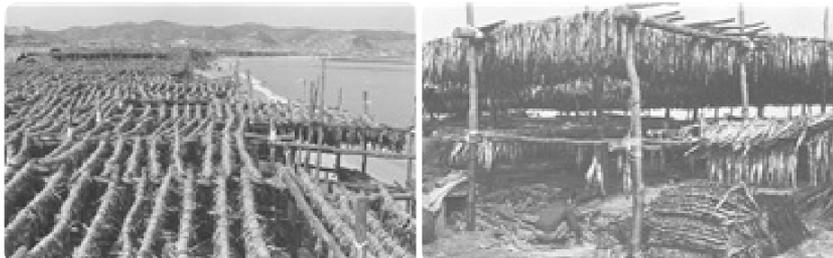
김현숙
(주)고성명태 대표

함지에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갈 길 바쁜 명태가, 발걸음도 마음도 마냥 가쁜 사람들과 함께 거진의 향기를 빛낸다.

어둠이 내려와도 불야성을 이루는 덕장 집 모래 마당은 명태가 산더미다. 마을 아낙들의 초저녁부터 시작된 할복 손질은 때론 밤을 밝히기가 일쑤다. 어린 자녀들도 손을 호호 불며 엄마 곁에 앉는다. 짚단을 옆에 끼고 졸린 짚 오라기 서너 개 빼내어 배를 가른 명태 두 마리씩 사이좋게 코를 켜다.

장정들은 양손 가득 한 두름(스무 마리)씩 명태를 들고 장단 맞추어 가마니 위에서 힘껏 비늘을 튄다. 철철 넘치는 수조의 바닷물에 하루의 찌꺼기까지 말끔히 씻어낸다. 뚝뚝 흘러내리는 바닷물 머금은 명태는 어둠 속에서 별빛처럼 반짝인다. 바닷바람을 등에 지고 상덕을 하는 아버지와 오빠들, 1층 덕이 가득하면 2층으로, 3층으로 덕에 매달려 넣고 또 낸다. 걸치고 있는 비닐 겹옷은 진작에 얼어붙어 부스럭대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하다.

깊어 가는 밤, 군데군데 양철 화로의 장작불이 사위어 갈 때, 한 덩이 애(명태의 간)를 잔불에 던지면 푸르륵 타오르는 푸른 불꽃, 덕장의 밤 추위가 달아나고 남은 힘도 솟아난다.



60~70년대 거진항 명태 덕장

한밤중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온 아낙들은 새벽밥을 지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품삼으로 받아온 창란을 손질한다. 염통을 가르고 창자는 훑어내어 길어올린 펄프물에 고단한 일상까지 행군다. 어린아이 속살같은 창란과 솜사탕같은 고니는 식탁의 반찬이 되고 엄마들의 가용이 되고

아이들의 학비가 된다.

어디 어촌뿐이겠는가?

산촌 사람들이 덕나무를 골라 벌목하여 건조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 그리고 아산마다 지천인 칙냉쿨을 일정 규격으로 잘라 곧은 노끈을 만든다. 폴리에스터 끈이 없던 시절, 낚싯배에서 조업한 명태를 물으로 옮기는 긴요한 도구다. 팔뚝만 한 명태를 칙냉쿨 끈으로 한 두름씩 꿰어 싣고 오면 부두에서도 은빛으로 요동치는 명태들. 그 맑은 명태국이라니!

싸릿대는 관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길고 튼실한 싸리나무의 가느다란 윗부분은 꼬아 묶는다. 고성군 뿐 아니라 인근 인제군, 홍천군, 양구군 자락에서도 채취하여 그곳 소식과 함께 실려 온 싸릿대는 각 덕장으로 옮겨진다. 겨울이 끝날 무렵, 건조된 북어 한 두름의 머리를 가지런히 꿰어 관태를 한다. 일렬로 꼳꼳한 북어패를 한 키 높이만큼 켜켜이 쌓아 포장한 싸릿대 작태 뭉치는 대채의 도매시장으로 출하된다.

명태는 죽어서도 다시 북어로 살아나, 전국 각 곳의 소매 시장에서, 주택가 골목 구멍가게에서 곧은 자세로 제수용 반찬용 안주용으로 저마다의 손님을 맞이한다.

농촌은 추수를 끝내도 쉼 겨를이 없다. 벼 타작을 마친 후 바짝 말린 짚단을 실하게 묶어 덕장 집에 보낸다. 할복한 명태를 덕장에 걸어 건조하기 위해 코를 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다. 질 좋은 지푸라기여야만 혹한의 바닷바람에도 덕나무에서 낙태가 되지 않고 긴 겨울을 견딜 수 있다.

남정네들은 햇볕이 잘 드는 처마 밑에서 혹은 겨울밤 사랑방에서 지나온 삶을 엮듯 지푸라기로 새끼를 꼳다. 여러 굵기로 단단하게 꼬아진 새끼는 용도에 따라 덕대의 이음새를 묶어주는 끈으로, 또는 북어를 짝태로 포장하는 노끈으로 사용된다.

거진의 오일장은 언제나 인산인해다. 산촌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서로의 요긴한 물건을 들고 와 팔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오기는 이 많은 사람을 놓칠 리 없는 옷가게, 신발가게, 잡화상, 국밥집 등등 상인들로 흥겹다. 두둥실 장구와 북소리는 건너편 바다까지 흐른다. 부둣가 근처의 선

구점에는 그물과 낚시 등 조업 도구들이 가게 앞 길거리까지 넘쳐난다. 뒷골목 선술집의 입술 빨간 언니들의 현란한 옷차림은 덤이다.

그 시절의 바닷가 마을, 고드름 열린 처마 밑에는 익어가는 북어가 기동인 양 집을 지키고, 가시철망 울타리에는 여물어가는 고니가 목화송이처럼 환하게 집을 밝힌다. 모래밭 곳곳은 그물 언덕이다. 젖은 그물을 펼쳐 말리고 군데군데 뚫어진 그물을 꿰매는 보망을 하느라 노할머니도 친정에 다니러 온 딸네도 품을 보태야 한다.

긴 해안을 따라 끝자락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득히 이어진 덕장은 틈새도 없이 빼곡하다. 엄동설한의 해풍을 안은 흥에 겨운 명태의 춤과 노래는 이 모든 풍경을 품는 거진항의 훈장이며 희망이다.

어촌 농촌 산촌 어디든 삼시세끼 가지가지의 명태 음식으로 배가 부르던 그 시절, 흰 눈이 사나흘 내려 산과 들판과 하늘과 바다가 한 빛이 되어도, 매서운 바람이 온 세상을 흔들어대도, 밤낮없이 명태와 함께 뒹굴던 고성, 모두가 고단한 일상이어도 풍요와 보람과 내일의 꿈이 자랑으로 공존했던 고성이다.

* 바다는 어머니다

바다와 함께 사는 이들은 안다. 바다는 맹목적으로 무조건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어머니임을. 언제나 자신의 분신을 내어주면서도 늘 자신을 과도에 채찍질한다는 것을.

북어를 실은 제 무게도 감당 못 할 것 같은 트럭이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날의 꼬불꼬불한 진부령을 넘어 서울로 떠날 때, 많은 자녀들도 책가방을 메고 집을 떠났다.

명태는 거진면을 거진읍으로 승격시켰고 <1973년 7월 1일>, 전깃불을 환하게 밝혀주었을 뿐 아니라 <1964년>, 2부제 학교 수업을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초등학교를 한 곳 더 개교해주었고 <거성국민학교 1969년 3월 1일>, 딸과 누이들을 위한 중고등학교도 설립했다 <거진여자중고등학교 1969년 3월 1일>. 그러나 더 이상의 상급학교는 감당할 수 없었다.

바다의 베풀음으로 제법 가세가 여유로워진 선장 집, 덕장 집, 상회 집 부모들은 자녀들을 도시의 상급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가끔 도시에서 본 아이들처럼 뽀얀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랐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끝없이 베풀어주는 명태가 그런 바람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커다란 믿음이 저변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집을 떠난 자녀들은 그곳에서 학업을 마쳐도 돌아오지 않는다. 도시의 일상은 부모의 삶을 잇을 만큼 바쁘기 마련이다. 부모들도 굳이 귀향을 권하진 않는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보다 세파에 살결 고아진 얼굴이 자랑스럽기도 했다.

이웃의 남겨진 아이들도 도시에 정착하여 가끔씩 드나드는 세련된 친구들이 부러워 새벽 버스를 타고 상급학교로 혹은 일터를 찾아 집을 떠났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하던 집과 거리와 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적막해져 갔다.

그즈음 때를 맞추기라도 한 듯, 명태도 들르지 않았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도 돌아올 줄 모르는 명태는 이곳 사람들의 살림살이도 마음도 점점 궁핍하게 했다. 마을의 노인들은 양지에 앉아 명태의 옛이야기를 오늘인 양 말하곤 하지만, 몇 안 되는 새롭게 태어난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그저 전설일 뿐, 인스턴트 음식이 맛있기만 하단다.

비로소 바다를, 자신을 돌아본다. 텅 빈 바다는 더 넓고 더 푸르려서 도저히 깊이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명태와 함께 보냈던 시절이 파도에 일렁이면,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보다 더한 회한이 앞선다.

그래, 단 한 번이라도 바다의 내일에 대해, 명태의 내일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었던가! 도시로만 보내면 저절로 말쑥한 어른이 되는 아이들처럼 (사실 아이들에게는 예상했던 것 이상의 돈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영하의 날씨에도 푸근한 눈이 내리고 살을 에는 듯해도 따듯한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오면, 슬그머니 우리 곁으로 찾아오는 명태의 몸짓은 순리인 줄 알았다. 탄식과 함께 생각 없이 살았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엄습해온다.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머리를 맞댄다.

누군가는 ‘마구잡이로 새끼 명태까지 잡아들였단다.’ ‘바닷물의 수온이 상승했단다.’ ‘바다가 오염되었단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각처의 지대한 관심과 문제 인식 속에서 한 해성수자원연구소 등의 연구 인력이 밤낮없이 명태 자원과 어종 연구에 매진한다. 고성군은 해마다 명태 축제를 개최(2023년 10월 23회)하고 관내 명태생산업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명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노력한다. 고성군의 명태 제조가공업자들은 지역에서 취수되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명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앞장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노력보다 더 큰 변함없는 희망이 존재한다. 바다는 우리들의 어머니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언제나 자리하지 않는가! 명태가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지만, 그 잘못의 어떤 해결책도 강구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어리석음을 어머니인 바다는 어여삐 어루만져 줄 것임을 안다. 잠시 가출 중인 명태가 그리운 어머니 품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임을 안다.

그러면 바다는 어제보다 더 깊게 품어 줄 것임을, 그래서 지친 우리를 다시 걷게 할 것임은 자명하다.

거진항, 이제 곧 돌아올 명태와 함께, 또다시 잠 못 이루는 풍요의 풍경 속에서 더 따뜻하게 서로를 안아주고 더 차갑게 담금질하면서 명태의 시대를 맞이할 일이다. 그리하여 더욱 새롭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구현하는 명태의 노래를 목이 메도록 부를 일이다.

개구리가 없어서!

오직 나만 개구리가 없으니, 인생의 한이다(唯我無蛙 人生之恨)

나는 몇 년 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여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자 교육’을 담당하여 가르친 적이 있다.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영어와 한자 실력에 깜짝 놀랄 때가 많았다. 실력이 아주 좋기 때문이다. 그곳 수업에서 늘 고사성어를 한두 개를 제시하여 서로 토의하며 익히도록 하는데, 그중에 ‘唯我無蛙(유아무와)’를 공부한 적이 있다.

고사의 내용도 재미있지만, 담긴 의미 또한 깊은 뜻이 있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르신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의한 적이 있었다.

唯我無蛙 人生之恨(유아무와 인생지한)

이것은 고려시대 문장가인 이규보(1168~1241)가 집 앞에 써놓은 글이다. 그가 이 글을 쓴 사연은 이러하다.

고려조 때 일이다. 임금이 궐 밖으로 야행에 나셨다. 산속에서 민가를 발견하고 그 집에 들렀다. 이규보의 집이었다. 집 앞에 있는 생똥맞은 글을 보고 임금은 사연을 물었다. 이규보는 그 사람이 임금인 줄 몰랐고, 자신이 세 번이나 과거시험을 봤지만 낙방했다는 말과 함께 차분하게 그 연유를 설명했다.

"옛날에 노래를 아주 잘하는 꾀꼬리와 목소리가 듣기 거북한 까마귀가 살았는데, 하루는 까마귀가 꾀꼬리한테 내기하자고 했다. 3일 후에 노래 시합을 하는데 백로를 심판으로 하자고 했다. 이 제안에 꾀꼬리는 어이가 없었지만 월등한 실력을 자신했기에 시합에 응했다. 3일 동안 목소리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자 노력했다. 반대로 노래 시합을 제의한 까마귀는 연습은 하지 않고, 개구리를 잡으러 돌아다녔다. 그렇게 잡은 개구리



권성준
전)고성 중·고등학교
교장

를 백로한테 뇌물로 가져다주고 뒤를 부탁했다. 시합이 열렸는데 백로는 까마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동안 피꼬리는 노래 시합에서 까마귀에 패배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얼마 지나서 백로가 가장 좋아하는 개구리를 잡아다 주어 자신이 패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은 실력이 있지만 뇌물 때문에 과거에 줄줄이 낙방한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임금은 '조만간 과거시험이 있을 것'이라며 자리를 떴다. 과연 그의 말대로 과거시험이 열렸다. 시제는 '唯我無蛙 人生之恨'이었다. 이규보는 매우 놀라고 나서 큰절을 하고 일필휘지로 답안지를 작성했고, 장원급제 하여 고려에 큰 공신이 되었다. 그 의제의 뜻은 나는 개구리가 없어서 인생을 한탄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때부터 고려와 조선시대에 뇌물이라는 말 대신에 "蛙利鷺"(와이로 : 개구리로 백로를 이롭게 했다)라는 말을 사용 하였다고 한다.

사실 '와이로'라는 말은 장·노년층에게 익숙하다. 일본말로 뇌물을 뜻하는 '와이로(わいろ)'이기 때문이다. 일본어로 회뢰(賄賂)를 와이로(わいろ)라고 읽는데 회뢰(賄賂)란 "재물 회(賄)+뇌물 뇌(賂)"자의 합성어로서 뇌물을 주고받는다 뜻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물론이고 해방 후에도 와이로는 약방의 감초처럼 먹히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기에 예나 지금이나 뇌물이 문제다.

조선 시대에도 탐관오리들의 착취와 지주들의 토지 독점으로 초근목피로 생명을 부지하던 소작 논이나 장리쌀을 남보다 손쉽게 얻기 위해서는 뇌물을 바쳐야 했다.

시도 때도 없이 바쳐야 하는 뇌물 때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가보를 상납하기도 했고, 사정이 급하면 애지중지 키운 딸자식을 지주나 그 아들놈의 첩으로 진상하기도 했었다.

그도 안 통하면 아들자식을 지주의 종놈으로 보내야 했고, 인면수심의 지주나 악질적인 '마름'을 만나면, 아내의 성까지 '뇌물'로 상납하기까지 했었다.

한번 가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징용이나 보국대(報國隊)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논밭이나 소를 팔아 주재소 왜놈 순사들과 그들의 앞잡이가 된 조선인 면서기들에게 ‘와이로’를 먹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길들여진 ‘와이로’ 풍조는 해방이 되고, 신정부가 수립되어도 그대로 악습이 전승되었다.

학교에도 ‘와이로’가 파고들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와이로’를 주고받아 부정 입학이 횡행했고, 군대도 ‘와이로’를 먹여 면제를 받거나, 근무가 편한 곳으로 전출이 되게 만들었다. 회사 입사에도 ‘와이로’면 통했고, 부패한 정치인들은 ‘와이로’ 먹기에 혈안이 되었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까지 ‘와이로’ 바람이 휩쓸었다. 그 누구도 말리지 못했던 치맛바람 시절이 그랬다.

뇌물은 어느 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 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물이란 게 그렇다. 계속 주거나 받으면 둔감해진다. 오래 주는 것이라 여겨지고, 받는 입장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한순간에 ‘뚝’ 끊거나 끊어지면, 안 줘서 찝찝하고 못 받아서 서운하다. 간혹 무슨 곤궁한 사정이 생겼나 하고 걱정하는 선한 마음들도 있지만, 세상인심이란 게 남의 사정에 그렇게 너그럽지 않다. 선물과 뇌물은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것이다.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다. 기본적으로 선물은 호의를 담보로 한다. 자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좋은 감정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누구도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라고 물건을 건네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뇌물과 가깝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의 대부분이 뇌물과 관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공짜는 찬물 한 잔도 없다는 것을 왜 모를까?

오죽하면 2016년에 김영란법이 생겼겠는가.

이 법을 ‘와이로법[개구리법]’이라고 하면 더욱 의미심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백 없는 서러움, 돈 없는 배고픔, 연줄 없는 고독감, 학연·지연·혈연이 없는 좌절감....

이것이 현실이다. 요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실태를 보면 백화점이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사회적인 충격이 매우 크다. 나름 꿈의 직장이라는 곳이 채용 비리로 얼룩졌단 증거다. 그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의 청탁에 의한 것이다. 비리의 뒷배에 권력자, '개구리'를 가진 자들이 힘을 쓴 결과라는 말이다.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사회 출발의 시작점에서 좌절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실력이 아닌 배경이 없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걸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약 1000년 전에 이규보가 세상을 타하며 '나는 왜 개구리가 없을까'라는 한탄을 했는데 지금의 청년들도 이런 한탄을 해야 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참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사회를 빙자한 것이 '와이로[개구리]'임을 재차 강조하며, 와이로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우리 스스로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자신 있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은 할 수 없을까.청렴은 혼자 할 수 없고 모두가 같이해야만 달성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이며 책임이기에 청렴해야만 하는 것이다.

뇌물이 없는 세상은 꿈일까?

2023 고성문화 제10호



향토문단

조선시대 한시에서
미시령을 찾다 51

한창영
고성학연구소장

이성선 시인,
아카이빙을 마치며! 63

이선국
이성선 시인 기념사업회 대표

돌이키는 마을 71

김철수
고성학 연구소 연구원

조선시대 한시에서 미시령을 찾다

1. 서언

미시령은 설악산 서쪽의 인제와 고성, 속초를 잇는 해발 826m의 고갯길이다. 2006년 6월 미시령 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차량이 급감하여 지금은 인적조차 없고 지나가는 승용차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옛길이 되었다. 미시령에 대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한창영
고성학연구소장

람(1530)』 제45권 간성군(杆城郡) 산천 조에는 “미시파령(彌時坡嶺) 고을 서남쪽 80리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1493)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 지금의 한계령)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고 기록했다. (彌時坡嶺. 在郡西南八十里許。有路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 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 復開此路)

미시령 길은 예로부터 높고 좁아 비탈이 심한 것으로 유명해 한 해 겨울이면 서너 번씩 길이 끊기곤 한다. 조선시대 간성 현감을 지내었던 태당 이식(李植)의 『간성지(杆城志)』에도 “한 해에 대개 너댓명이 목숨을 잃고 열 마리 정도의 말이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붙여진 미시령은 조선시대 영서로 통하는 길은 강릉 대관령을 제외하고 대체로 소로(小路)이고 주 통로가 미시령이었다. 그래서 부임을 받고 원주 감영이나 한양을 떠나 흥천을 거쳐 인제를 통해 간성, 양양으로 오는 선비들이 남긴 글이 적지 않다. 특히 1631년 이식 현감 또한 이 고개를 넘어 간성 땅을 밟았다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진부령이었다.

본고에서는 한시 속에 절창 된 제영 시를 보면 물 수(水), 모름지기 수(須), 술가락 시(匙), 화살 시(矢)로 표현하고 있는 옛길 미시령을 소개하므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더 나아가 고성학 정립에 기여하는 데 있



(사진 1) 미시령 옛길

II. 시문(詩文)

1. 물 수(水) 표기

미시령은 영서로 넘어가는 간성지역의 고개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러한 관계로 깊은 골짜기에서 쉼 없이 흐르는 물로 제명을 사용하고 있다. 즉 흐르는 물도 끊임없이 널리 흘러간다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위한(趙緯韓)¹⁾

미수파(彌水坡)

怪石奇岩似鈿鋸 괴이한 돌과 기이한 암석이 칼로 잘라낸 듯하고
 重關複嶺瀉穹蒼 중한 관문의 첩첩 고개는 하늘을 몰아세운 듯 하네
 陰陰嵌竇龍樓祕 음산한 동굴은 용이 숨은 듯하고
 官官巔崖鳥道長 킁킁한 벼랑은 새가 지나는 길처럼 늘어졌네.
 脚插東溟朝蹙日 다리를 동쪽 바다에 담구어 아침에 해를 차내고
 髻連楓岳夏留霜 상투를 풍악산에 묶으니 여름에도 서리가 내리네
 縱然未遂愚公計 설령 산을 우공(愚公)의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1) 조위한(趙緯韓), 1567년(명종 22)~1649년(인조 27). 자는 지세(持世), 호는 소옹(素翁), 현곡(玄谷)이다. 본관은 한양(漢陽), 초명은 소한(紹韓), 성혼(成渾)의 문인. 권필(權鑠), 이안눌(李安訥), 이춘영(李春英) 등과 교유하였다. 1623년 9월, 試官의 일을 잘못 수행한 國舅 韓浚謙의 사위 鄭百昌을 논박하다. 이 일로 상의원 경이 되었다가 襄陽 府使로 나간다.

欲斷靈蛇鏹疊岡 신령스런 뱀이 서린 첩첩 산을 깎아 끊어내고자 하네
『현곡집권7(玄谷集卷之七)』

저자는 1623년(인조 1) 10월(閏)에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도입되었다가 잠시 틈을 내어 임소인 양양과 주변 간성·고성(금강산)지역의 명소를 유람하고 〈현산록(峴山錄)〉을 남겼다. 저자의 도입 경로를 살펴보면, 강원도 홍천을 경유하여 인제현에서 머물렀다가 미시령을 넘어서 부임지 양양으로 들어간 일정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고개를 ‘미수과(彌水坡)’라고 기록하고 있다.

2) 김창흡(金昌翕)²⁾

미수령에 오르다. 〈上彌水嶺〉

牕巖才過立巖高 창암(牕巖)³⁾이 재주가 과하여 바위를 높게 세우니,
撐突雲霄似插刀 구름 낀 하늘까지 치솟아 칼을 꽂아놓은 것 같네.
負勢眞能長弟起 세력을 믿고 능히 장제(長弟)가 일어나니,
呈奇似慰往來勞 편지를 부치는 것이 위로하는 듯하여 왕래하며
수고하네.

名山磅礴斯爲喬 명산의 기세가 높아 후예가 된듯하니,
詞客牢籠偶爾遭 문장을 읊는 객들이 뇌룡(牢籠)에서 우연히 만나네.
亦有佳潭藪惡號 또한 아름다운 연못이 나쁜 소리로 덮혔으니,
須君洗雪在揮毫 모름지기 그대는 눈으로 씻어낸 붓으로 휘두르시오.
이른바 도연(盜淵)⁴⁾ 은 샘과 돌이 절경이라 그렇게 이른다네.

〈所謂盜淵。泉石絕勝故云〉

『삼연집권10(三淵集卷之十)』

2) 김창흡(金昌翕). 1653년(효종 4)~1722년(경종 2), 자는 자익(子益), 호는 낙송자(洛誦子), 삼연(三淵)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이단상(李端相), 조성기(趙聖期)의 문인이다.

3) 간령으로 가는 입구에 있다. 용대리에서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바위.

4) 도적폭포를 말한다.

3) 김시보(金時保)⁵⁾

미수령에서 고자(高字) 운을 얻다. <彌水嶺得高字>

追隨雲月自吾曹 구름과 달을 따라 나의 무리들은
 曉下天臺嘯詠豪 날이 밝아오는 천대(天臺)에서 시를 읊었네.
 深藪熊號秋嶺巨 깊은 풀숲의 곰 울음소리가 추령(秋嶺)에서 크게
 들리고,
 窮山馬病石崖高 산을 돌아다니니 말은 병이 들고 바위는 높이 솟았네.
 峨洋逸調聊相答 산과 바다가 조율하며 서로 답하니,
 瀑布奇觀又一遭 폭포가 떨어지는 기이한 장관을 다시 한 번 만나는구나.
 浮世百年無此樂 덧없는 세상의 백년 삶에 즐거움이 없으니,
 捫蘿竟日敢言勞 넝쿨이 온종일 이어지니 감히 말해봤자 수고롭네.

두 번째(其二)

鰲脊羊腸去去高 바다거북 등처럼 굽이치고 양의 내장처럼 구불거리며
 갈수록 높아지니,
 車前黃葉墮蕭騷 수레 앞의 누런 잎이 스산히 떨어지네.
 雪山峭壁分天勢 눈 내린 산의 깎아지른 절벽이 하늘의 위세를 가르니,
 楓岳層峰泛海濤 풍악(楓岳)의 층층이 이어지는 봉우리가 파도위에
 떠있네.
 奇賞漸知趨異境 기이한 구경을 하며 점차 다른 곳으로 가니,
 遠遊何況得同袍 멀리 떠나며 어찌 하물며 친구를 얻겠는가.
 平看日脚頭邊逼 가만히 햇살을 바라보니 머리 가장자리에 몰려있으니,
 雖未登仙亦足豪 비록 하늘에 오른 신선은 아니더라도 또한 족히 호방
 하네.

5) 김시보(金時保), 1658년(효종 9)~1734년(영조 10), 자는 사경(士敬), 호는 모주(茅洲),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김창협(金昌協), 김창흡(金昌翕), 이희조(李喜朝), 정호(鄭澥) 등과 교유하였다.

세 번째(其三)

短髮西風倚杖高 짧은 머리에 서풍이 불어 지팡이를 높이 의지하니,
 忽看溟漲莽滔滔 홀연히 바다 파도를 바라보니 푸른 물결 넘실대네.
 爲水元來唯滄海 물이 만들어진 것이 원래 푸른 바다에서 시작되는데,
 與天相際盡洪濤 하늘과 더불어 끝이 없이 파도가 넘실대네.
 輕身恍若凌空舉 가벼운 몸이 비록 빈손을 들어 능멸하지만,
 快意堪酬歷險勞 즐거운 마음으로 험난한 고생을 두루 감당하며 맛보네.
 地勢窮邊知物巨 땅의 기세는 몸소 크기를 알았으니,
 笑他天吼似秋毫 다른 천후산(天吼山)을 비웃으니 가을 터럭 같다네.

『모주집권권4(茅洲集卷之四)』

저자는 1711년(숙종 37) 8월에, 김창흡(金昌翕), 정동후(鄭東後), 정선(鄭勳) 등과 금강산(金剛山)을 한차례 유람하였다. 이듬해 7월에 양구현감(楊口縣監)이 되면서 9월에 설악산(雪嶽山)을 유람하였다. 11월에는 간성군수(杆城郡守)로 임명을 받았으나 12월 18일에 입소에 도입되었다. 당시의 나이가 55세였다. 1713년(숙종 39) 봄에는 간성지역의 영랑호(永郎湖)·화암사(禾巖寺) 등지에서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과 수창(酬唱) 하면서 금강산을 유람도 함께 하였다. 김창흡은 저자의 시에 대하여 평하기를 “그의 시는 성령(性靈)에서 발하는 것이 충담(沖淡)하고 광원(曠遠)하여 왕왕 대아(大雅)와도 같다.”라고 하였다.

2. 모름지기 수(須) 표기

모름지기 ‘수’자로 제명을 썼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뜻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오래 걸리는 고개가 당연하다는 뜻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1) 구문유(具文游)⁶⁾

미수파(彌須坡)에 올라서 2수

6) 구문유(具文游). 1644년(인조 22)~1718년(숙종 44), 자는 사아(士雅), 호는 예곡(禮谷). 본관은 능성(綾城)이다.

日出之濱有水州 해 돋는 저 물가에 수성 고을이 있다더니.
 彌須嶺盡地西頭 서쪽 땅 끝 머리에는 미수령이 또 있구나.
 山腰棧道盤還屈 산허리를 이은 길은 구불구불 돌아 났고
 樹杪人言仰或酬 나무 끝의 사람과는 올려보며 대화하네.
 脚逐騰龜緣壁上 다리는 절벽 타는 다람쥐를 따라가고
 身隨飛鳥共烟浮 날아가는 새와 함께 창연 속에 몸이 떴네.
 斜陽獨立東回首 해질녘에 홀로 서서 동쪽을 바라보니
 碧海茫茫眩望眸 아득한 푸른 바다 보는 눈이 아찔하네.

두 번째(其二)

振衣千仞上層巔 옷을 걷고 천 길 산꼭대기에 올라가니
 納納乾坤望眼前 바라보는 눈 앞으로 건곤이 들어오네.
 九邑封疆山畫野 산줄기 들을 갈라 아홉 고을 나눠놓고
 三韓窮境海吞天 삼한의 땅끝이라 바닷물이 하늘 삼킬 듯하네.
 雲烟引帳頭邊過 운무는 휘장 끝 듯 머리 스쳐 지나가고
 日月迴輪脚底旋 둥그런 해와 달은 다리 밑에서 선회하네.
 此去玉京纔咫尺 여기서 하늘까지는 지척일 것만 같아
 飄然羽化欲登山 날개 돋친 신선 되어 날아오르고 싶다네.

『예곡유집권1(禮谷遺集卷之一)』

저자는 1680년(숙종 6) 간성군수를 역임한 구음(具崑)의 아들이다. 부친이 계신 임소를 찾아오는 길에 남긴 작품이다. 간성에서 머무르는 동안 많은 시작을 남겼다.

3. 손가락 시(匙) 표기

미시령 고개가 높아 이른 새벽에 떠나야 점심 때 되어서야 정상에 도착한다는 이 고개를 가리켜 손가락 시로 표현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 최성대(崔成大)⁷⁾

미시령 아래 용두촌⁸⁾에서 잠시 쉬면서

-미시령은 일명 연수파라고도 한다-

〈彌匙嶺底。暫憩龍頭村。嶺一名連水坡〉

遠郡苦難到 먼 고을 도착하기 어려움에 괴로워

我行逾十日 내 걸음 열흘 지났지

自春循峽江 봄부터 협강을 따라

經麟入山樾 인제를 거쳐 산월에 들어가니

其間數百里 그 사이 수백리

路險難盡說 험난한 길 말로 다하기 어려워라

况逢風雪頻 하물며 빈번한 눈바람을 맞고

兼值嵐瘴泄 아울러 학질에 의한 설사를 겪음에라

溪深湍石悍 시내 깊어 여울돌 사납고

谷暗林箐密 골짜기 어두워 대숲 촘촘하니

五馬行速遽 다섯 말도 머뭇거리고

徒御亦嘯呻 마부도 신음하네

暫入龍頭村 잠시 용두촌에 들어가

歇鞍問村民 안장을 풀고 촌민에게 묻기를

襄州今遠近 양주는 이제 어디쯤이오

何日可抵官 언제 관사에 당도할 수 있소

答云前有嶺 그가 답하기를 앞에 고개가 있어서

高聯雪嶽山 높이 설악산과 이어지는데

其名連水坡 그 이름은 연수파라 합니다

鳥籠與蛇盤 새장처럼 구불구불한데

努力到極頂 노력해서 정상에 오르면

7) 최성대(崔成大). 1691년(숙종 17)~1762년(영조 38), 자는 사집(士集), 호는 두기(杜機),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신유한(申維翰), 오광운(吳光運), 임경(任珽) 등과 교류하였다.

8) 지금의 인제 용대리를 말한다.

其上有神祠 그 위에 사당이 있어서
 俯瞰襄州府 양주부를 내려다보면
 如拳渺海涯 바다가 주먹처럼 아득합니다
 下嶺始平地 고개를 내려가면 평지가 시작되는데
 風煙千里豁 풍연이 천리나 트이고
 繁華太平樓 태평루 변화하며
 奇勝洛山刹 낙산사 절경이라
 官爲太守去 태수로 부임되어 가면
 榮耀自可悅 그 영광에 자연히 즐거우리라
 莫言登嶺苦 고개 넘기 괴롭다 말하지 마소
 險阻從此畢 험난함도 여기서 끝난다오
 莫愁到州遲 고을에 가기가 더디다고 근심하지 마소
 明日行即達 다음날에 가면 곧 도착한다오
 語罷謝村民 대화가 끝나 촌민에게 사례하니
 藍輿向前發 남여가 앞길을 향해 출발하였다
 『두기집권4(杜機集卷之四)』

저자는 1750년(영조 26) 1월, 양양부사(襄陽府使)에 도입되어 오는 길에 남긴 글이다.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시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용두촌에서 잠시 머물러 안장을 풀고 마을 주민에게 양양까지 어디쯤이라고 물어본다. 그가 답하기를 “앞에 고개가 있는데 설악산과 이어져서 그 이름은 연수파(連水坡)라고 합니다. 고개가 새장처럼 구불구불한데 정상에 올라 양양부를 내려다보면 바다가 주먹처럼 아득합니다.” 그는 12월에 양양부사 임기를 마쳤다. 관직은 대사헌에 이르렀다.

4. 화살 시(矢) 표기

날아가는 화살 또한 넘기 힘든 고갯길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문인들이 남긴 시어에는 날아가는 새도 넘기 어렵다고 했다. 지금의 미시령은 한자명이 1771년 이후 화살로 표현되고 있다.

1) 이휘정(李輝正)⁹⁾

미시령

登登亂石復千回 오르고 올라도 어지러운 바위 거듬 천 굽이나
 又是關東最上臺 역시 관동 지역 최상의 누대라
 三月山中多積雪 3월 산속인데 쌓인 눈 많으니
 杜鵑猶自向陽開 두견이는 여전히 태양 향해 열리네
 『방야만록권3(方野漫錄卷之三)』

저자는 1771년(영조 47) 이보천, 조원철, 이의숙 등 세 친우들과 금강산, 설악산 등지를 유람하고 남긴(叢石), (三日浦), (九龍淵), (七星峯日出), (金欄窟)과 같은 기행 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1840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2) 김몽화(金夢華)¹⁰⁾

미시령(彌矢嶺)

危乎彌矢嶺 위태롭구나 급하도다 미시령이여
 梯棧共鉤連 사다리가 서로 얽혀 연결 되었네
 峯合疑無路 봉우리가 겹쳐있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巖開始見天 암석 사이가 열려있어 비로소 하늘이 보이네
 舍轎休馬足 마굿간에서 말의 다리는 쉬고
 越險賴僧肩 험준한 길을 건너며 승려의 어깨를 의지하네
 遙見巖縫折 멀리 봉우리가 겹쳐진 험준한 곳을 바라보니
 人言雪岳巔 사람들이 말하길 설악산이라고 하네
 『칠암집권3(七巖集卷之三)』

저자는 1788년(정조 12) 10월에 양양부사에 도입되어<유설악록(遊雪嶽錄)>·<고성기행록(高城記行錄)>등을 남겼다. 그중 <유설악록>은 김재찬

9) 이휘정(李輝正), 1760~?. 초명은 광정(光正), 자는 경복(景服), 호는 방야(方野), 본관은 우봉(牛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0) 김몽화(金夢華), 1723년(경종 3)~1792년(정조 16), 자는 성민(聖民), 호는 칠암(七巖),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金載瓚)과 함께 가을에 설악산을 돌아보고 적은 기행문이다.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알려진 설악산의 와선대(臥仙臺)·비선대(飛仙臺) 등을 돌며 느낀 절경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다.

Ⅲ. 소결

이상에서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미시령에 관련한 시문은 20편에 가깝다. 시기별로 보면 미시과령에서 미시과로 다시 미시령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문인들의 작품을 분석해보면 李植의 〈彌時坡嶺 2수〉, 許禱의 〈9월 彌時坡에 오르니 큰 눈이 고개에 가득하다, 간성, 양양, 인제 경계이다〉, 蔡彭胤의 〈彌時嶺〉, 李最中の 〈彌時嶺〉 등이 시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미시령을 달리 불렀던 1709년 김유(金樸) 「유풍악기(游楓嶽記)」에서도 “마침내 고개를 넘었다. 고개는 바로 이름이 미시령이었는데 혹 ‘미일령(彌日嶺)’이라고 일컬었으며 세속에서는 연수과(烟樹坡)라 부르기도 하니 가로막히고 험준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일컬어진 곳이다.” 〈遂踰嶺。嶺即名彌時而或稱彌日。俗號烟樹坡。阻峻稱於世〉고 기록하였다. 1750년 양양부사 최성대(崔成大)가 쓴 한시 제재를 보면 “미시령 아래 용두촌에서 잠시 쉬면서 〈미시령은 일명 연수과(連水坡)라고도 한다.〉 〈彌匙嶺底。暫憩龍頭村。嶺一名連水坡〉 근대 와서는 1951년 공병대(1101)에서 원암에서부터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이르는 구간 도로 32km를 새로 개설하였다. 당시 야전공병 부대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이 인력 동원에 동참하여 착공 6개월 만에 완공 개통하여 종전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때 도로의 명칭은 군부대에서 ‘충통로(忠通路)’라 명명(命名)하였는데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미시령 옛 도로 암벽에는 ‘충통(銃筒)’ 4284년(1951) 10월 일 1101 0000야전공병단이라고 한 각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글씨를 쓴 이는 최홍희 장군이며 정상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彌矢嶺’ 초서체 표지석이 남아있다. 이제까지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갖는 미시령에 대하여 연구조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옛길 미시령의 연구에 새로운 기초 자료로 마련하고자 한다.

이성선 시인 아카이빙을 마치며 !

지난해 10월 한국 현대시단(現代詩壇)의 큰 별이신 우리 고장 출신 이성선 시인의 아카이빙 작업을 마쳤다.

아카이빙(archiving)은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기록을 파일 등 저장 매체에 보관해 두는 일로써 최근 인물과 사건에 대한 아카이빙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선국
이성선 시인
기념사업회 대표

이번 작업은 <고성문화재단>에서 <주> 빛나는 날들> 프로덕션에 의뢰해 『성대리 시인 이성선』에 대한 영상기록 제작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주요 작업 내용은 시인의 고향 생가와 마지막까지 창작 활동에 전념하시던 자택과 서재, 지역과 한국 시단의 원로시인 등 지인들과 시인의 머물렀던 곳들을 찾아 이성선 시인의 시 세계를 이해하고 시인의 흔적을 돌아보는 영상물을 제작했다.

영상 인터뷰 과정에서 우리 지역 원로시인이신 이상국 시인께서는 “1970년 당시 영동지방의 첫 등단은 매우 획기적인 일로써 지역 시문학 발전의 시발점이었다”고 회고했다. “등단 이후 양장제본 된 첫 시집 『시인의 병풍』 출간을 축하하고 기념했던 것”을 떠올렸다. “고성 성대리의 별이자 설악의 시인, 분단의 아픔을 넘어 현대사의 비극을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평가하면서, “「고향의 천장」 등 작품마다 고향 산과 별, 우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는 현대 시들을 많이 발표한 훌륭한 시인”으로 평가했다.

시인과 함께 한국 시단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으로 하늘과 별, 우주와 교감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심화시킨 대표적인 시인, 미시령과 나뭇잎, 자연과 별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문학적 삶을 그리움으로 승화시킨 시인”이라고 극찬하면서 “범접하기 어려운 세속의 세태, 맑은

샘물, 인간의 발견, 벌레 시인 등 자연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가진 탁월하
신 시인”으로 기억한다고 시인을 높이 평가했다.

최정숙 사모님께서서는 “시작(詩作) 활동은 고된 작업으로 설악산과 자연
을 유난히 사랑, 현재 생각도 직접 설계해 자연 친화적으로 집을 건축하
였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성선 시인의 연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41년 1월 2일 강원도 고
성군 토성면 성대리 256번지 작은 시골 동네에서 아버지 이춘삼과 어머
니 이월용 사이 2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다섯 살 때 광복을 맞았다.
엄혹한 시절 천진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이십여 리 넘는 시골길을 걸어서
오가며 시 쓰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6·25 때 헤어진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
움이 남달랐던 시인은 홀로 학교를 오가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애뜻한 그
리움은 문학적 감성의 싹으로 자랐다.

초등학교 졸업 후 또다시 왕복 칠십 여리를 오가며 속초중학교와 속초
고등학교를 마치고 어머니의 권유로 고려대학교 농학과를 입학했다. 재
학시절 등단하고 싶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
원으로 잠시 근무했었지만, 문인과 학자의 꿈을 접지 못하고 1970년 고
향으로 돌아와 고성군 토성면 백촌리 소재 동광 농업고등학교 교사로 부
임했다.

교직 생활 동안 청년의 뜨거운 문학적 열정은 1969년 설악 문우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활동을 시작했고, 1970년 『문학비평』에 「시인의
병풍」 등 4편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1972년 『시문학』에 「아침」,
「서랍」 등이 다시 추천받아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이 무렵 고향인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소재 청간정에서 최명길 시인 등
몇몇 문인들과 함께 「금강문학회」를 창립했고, 『금강문학』 동인지도
발간하는 등 고성지방에 현대문학의 씨앗을 뿌리고, 1985년경 고향 후배
들을 찾아 초자연주의 시학을 독려하는 등 척박한 지역 문학의 새로운 활
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시문학이 일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1981년 최명길 시인, 이상국 시인, 고흥렬 시인과 함께 『물소리 詩 낭송회』를 창립, 매월 속초 시내 다실과 카페 등을 전전하며 도반이었던 최명길 시인과 함께 1999년 6월까지 시낭송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대중과 함께하는 시문학의 신기원을 만들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149회를 끝으로 그 흐름을 멈추었다가 2013년 12월 다시 제150회를 이어감으로써 물소리 詩 낭송회는 지금까지 지역 문학의 산실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시인은 문학에 대한 갈증으로 1986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에 입학했고, 1990년 한국시인협회 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고성과 양양중·고등학교에도 몸담은 적이 있었고, 1996년에는 고향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초·고성·양양지역 환경운동연합』 결성을 주도해 공동의장을 맡기도 했다. 1997년부터 1여 년간 최명길 시인과 함께 『목요 문예』 강원을 주도하면서 시문학을 선도했고, 2000년 송실대 문예창작과 교수와 원주 토지문화관 관장을 맡기도 했었는데 2001년 5월 4일 홀연 세상을 떠났다.

시인은 1988년 강원도 문화상을 수상하였고, 1990년 제22회 <한국시인협회상>, 1994년 <제6회 정지용문학상>, 1996년 <제1회 시와 시학상> 등을 각각 수상했다.

시인은 생전 1974년 첫 시집 <시인(詩人)의 병풍(屏風)>(현대문학사) 시작으로 산문시를 포함해 모두 13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1977년 <하늘문을 두드리며>(전예원), 1979년 <몸은 지상에 묶여도>(시인사), 1982년 <밭줄>(창원사), 1982년 <나의 나무가 너의 나무에게>(오상사), 1987년 <별이 비치는 지붕>(전예원), 1988년 <별까지 가면 된다>(고려원), 1989년 <새벽 꽃향기>(문학사상사), 1991년 <향기 나는 밤>(전원), 1991년 <절정의 노래>(창작과비평사), 1994년 <벌레시인>(고려원), 1999년 <산시>(시와 시학사), 2000년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세계사) 등이 있다.



이성선 시인의 생전,
설악산에서!

이것을 집약한 전집으로 2005년 〈이성선시전집〉(시와시학사)과 2011년 〈이성선 전집1·2〉(서정시학)이 각각 출간되었다.

이성선 시비 건립위원회, 문학사상, 현대시학, 현대 시, 시안, 시와 시학, 작가세계, 서정시학, 한국문인협회 강원지부, 민족문학작가회의의 강원지부, 시사랑문화인협회의, 속초중·고등학교 제7회 동기회의 뜻으로 2002년 5월 3

일 고향 생가터에 시비(詩碑)가 세워졌다.

지난 2021년 속초에서 개최된 이성선 시인 20주기 추모 심포지엄에서도 발제자인 고희렬 시인은 이성선 시인은 한국 시단의 형세에서 볼 때 동쪽에 우뚝 서 매일 뜨는 해와 같다고 극찬하신 바 있다.

고성군은 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 지역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현재까지도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접경지역이고 분단 군이라는 사실이다. 분단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성선 시인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본다.

일단, 시대적으로 시인께서 태어난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다섯 살 때 해방을 맞게 되었고, 38 이북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 김일성 체제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시인 역시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 김일성 체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시인이 인민학교를 다닐 때 6.25 전쟁을 맞았고 전쟁이 끝나고 이곳이 수복되어 현재의 위치가 되었다. 시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성년이 되었을 때는 일제강점기 시절 북한 김일성 체제에 있던 가족의 과거로, 월북 아버지라는 주홍 글씨가 시인을 늘 따라다녔다. 연좌제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분단된 접경지

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반공정신이 더 투철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반공법, 국가보안법은 아마도 시인께서도 벗을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였을 것이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언급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었던 암울했던 시절이었다. 분단이라는 비극의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시인은 의식적으로 서경적인 사유를 경계하고 서정적인 사유에 집중해야 했었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내면이 더 뜨거운 시인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접경지역 민중 삶의 현상이며 그것이 분단 문학의 한계일 수도 있다.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1985년부터 군청 소재지인 간성에서 해마다 시화전과 시낭송회를 주관한 바 있다. 20대 후반이었던 필자가 고향 후배들에게 특별 시문학 강좌를 시인에게 부탁했었고 시인께서도 고향 후배들을 위해 흔쾌히 함께해 주셨다.

자리를 함께했던 젊은 청년 독자들은 민주화 열기가 뜨겁던 시절, 시대의 지식인으로 시인들의 작품에 대한 열띤 토론도 있었다. 저항시, 민중시, 참여시가 대세였던 점을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그때도 시인께서 자연주의적 순수 서정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고집스럽게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비극적인 분단 현실과 가족사에서 보듯이 어느 쪽에도 치우칠 수 없는 고독한 시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수려한 자연환경도 시인의 시 세계 중심이기도 하다.

우선 시인이 태어난 성대리 마을은 금강산 신선봉 산자락에 위치한 농촌이지만 미시령을 경계로 설악산과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과 설악산의 정기를 함께 받고 태어났다.

고성지역은 산, 바다, 호수가 함께 하는 천하의 아름다운 곳이다. 명산 백두대간 자락은 하늘, 구름, 산, 바람, 달과 별의 공간이 되었고, 마을을 휘돌아 나가는 냇강의 물소리, 10여 리 떨어진 광망한 바다와 파도 소리가 들리는 유려한 자연환경은 그 시심의 중심이었다. 태생적으로 우주의 합일을 끌어낼 수 있는 자연 환경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시인의 고향은 애당초 간성군에 속했다가 1914년 고성군과 합병되었고, 1919년 양양군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태어날 당시는 양양군 토성면 성대리였다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수복된 이후 1963년 다시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로 행정구역이 돌아왔다.

시인의 소학교 시절은 성대리 마을에서 바닷가에 위치한 학교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도 결코 가깝지 않은 속초를 걸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다. 등하교의 논둑길, 들길과 오솔길을 오가면서 흙과 생명의 자연을 온몸을 느끼고 자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인의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사유가 바로 그 바탕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어린 시절, 해 저물어 속초에 다녀오는 길에 아버지 등에 업힌 시인과 아버지와의 대화가 일화처럼 전해진다. 바다에서 휘영청 밝게 뜬 달에 대한 서정적인 대화가 시인에겐 훗날 시의 씨앗이 되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아버지의 부재와 그리움이 남달랐지만, 결코 내색할 수 없는 삶은 어찌면 시인에게 병이 되고 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분단의 비극으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주홍 글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하늘과 별, 우주라는 시적 제재를 통해 표출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내면의 그리움이 시로 승화되어 시가 더 뜨거운 이유이기도 하다.

소년 시절 문학에 대한 꿈은 진학 과정에서 완고한 할머니와 어머니의 권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학교 졸업 이후 농촌진흥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짧은 기간 근무했었지만 결국 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교단에 서게 되었다.

고향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료 문우들과 속초 문학의 산실이 된 설악 문우회 창립에 함께했고, 1970년 등단 이후 열정적인 창작 활동으로 생전 모두 13권의 시집을 발표하였다.

1981년 최명길, 이상국, 고행열 시인과 함께 물소리 시낭송회를 창립해 매월 시낭송회를 갖는 등 시문학의 열정을 꽃 피우면서 순수 서정시인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속초에 거처를 마련해 고향 성대리와 설악산을 오가며 창작 활동을 펼쳤던 시인의 문학적 고향은 바로 고성과 속초였다.

어느 날 시인이 구름처럼 홀연히 세상을 떠나자, 시인을 아끼는 분들이 시인의 빈 자리를 너무 안타까워하셨다. 허형만 시인은 신선봉이 어느 날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 나왔다가 돌아갔다고 시인을 묘사하기도 했다.

우리 시단과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현대 시의 미래를 밝히신 시인은 우리 고장의 자부심이며 자랑이다. 시인의 훌륭한 시업이, 앞으로도 영롱한 보석처럼 더 뜨겁게 빛나고 많은 분께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성선 시인 기념사업회』가 창립해 운영 중이다.

출범 초기라서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향후 기념사업회는 백일장, 시극, 시 필사, 시 낭송, 문학 페스티벌, 동영상(UCC) 전국공모전, 도서의 간행 및 세미나·심포지엄, 학술강연회 개최, 이성선 시인의 생가 및 시비 관리, 시인의 길 조성 등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이성선 시인을 추모하고 시업(詩業)을 기리는 선양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려고 한다.



이성선 시비가 작고한 후 토성면 성대리, 고향 생가터에 세워져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기념사업회 회원과 자문위원 등 추진 인력을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뿐만 아니라 문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이성선 문학상』 제정, 『문학관 및 문학비』 조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려는 민·관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성선 시인을 기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범군민적 노력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돌이 크는 마을

일반적으로 돌이 크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돌이 어찌 클 수가 있을까? 오히려 잘못된 이상 주의자라 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 행성, 자연계를 자세히 살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이다. 잠시 지리학자가 되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생각이 달

라질 것이다. 높은 바위산 평야 개활 지역 돌출된 바위 냇가, 물 길옆 바윗돌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62년 전, 토성면 재건 촌(신평2리) 이장 엄월섭씨는 “우리 마을은 돌이 크는 마을입니다.” KBS 라디오 기자와 인터뷰 과정에서 발언하였다. 과연 신평2리(재건 촌) 마을만이 돌이 클 수가 있을까? 이곳은 자연현상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인의와 자연현상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 논문은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눈에 보이며 느껴지는 생각을 기록하여 모두가 함께 보고 또한 자연현상을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 살펴보고 대자연의 기이한 현상을 연구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대변자가 되자는 뜻에서 기록하였음을 기억, 상기하시며 읽어 보시길 바란다.

정부 시책에 의해 1961년 8월 21일 서울에 거주하던 무주택자 118세대의 746명이 인흥리 산62번지와 신평리 산136번지 일대에 이주하여 15동, 20동, 10동, 73동 등 4개 지역에 각각 분산하여 주택을 짓고 농토를 개간하게 되었는데, 가구당 대지 약 397㎡(주택 약 66㎡)를 정부에서 지어주고, 전(밭) 약19,504㎡를 개간하여주었다.

가구당 대지 120평×118세대=14,160평 (약 46,810㎡), 전(田) 5,900평×118세대 등=696,200평 (약 2,301,488㎡), 농로 마을 진입로 기간 도로



김철수
고성학연구소
연구원

등=약150,000평 (약 495,868㎡), 합계 8,603,600평 (약 2,844,165㎡) 90여만 평의 임야(산)를 훼손 전답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방풍림 없이 그 넓은 들을 만들었으니, 이 지역은 양간지풍(讓杆之風)이 심한 곳이었다. 전답을 기경 하면 보통 10cm~15cm 기경하게 되는데 밭을 갈아서 퇴비와 비료를 뿌리고 감자나 옥수수 등 각종 씨앗을 뿌려 심고 나면 싹이 나기도 전에 태풍 수준의 바람이 불어 밭을 갈아 놓은 밭에 흙과 각종 씨앗이 밭아도 못 하고 모두 날아가고 없으니 이주민들이 수년을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끝내 이 지역을 떠나고 말았다.



신평2리(일명:재건촌) 지역은 지금 나무와 숲이 자라 덮여있다

구전에 따르면 인흥 지역 농민들이 논밭을 갈아놓으면 보통 5mm 정도의 흙먼지가 논밭에 객토하듯이 날아와 쌓인다고 한다. 그래서 봄만 되면 태풍 수준의(양간지풍) 광풍이 불어 인흥리, 성천리, 용촌 리, 지역은 그 당시 바람이 부는 날이면 문을 닫아걸고 모두 밖을 나 가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하늘을 보면 황사현상으로 흙먼지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날려서 하늘의 태양이 달 과같이 하얗게 보였다고 한다.

몽골지역의 황사보다 이 지역 황사가 더 지독했다는데, 지금은 정부의 산림녹화 사업으로 원시림 지역으로 변화했으나 초창기에는 나무와 풀을 심고 씨앗을 뿌려 놓으면 바람에 모두 날아가 버렸고 심지어는 역새풀을 심어놓아도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10여 년의 노력 끝에 지금은 원상회복이 되었다.

처음으로 돌아가 어떻게 돌이 클 수가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다. 봄이 되면 90여만 평의 밭을 기경 10cm~15cm 깊이로 갈아 씨를 뿌리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양간지풍으로 씨앗은 물론이고 흙까지 모두 날아가니 땅속의 돌이 들어 남은 물론이고 땅에 묻혀있는 돌은 10cm~15cm 솟아오르니 돌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밭이 아닌 들판에 있는 돌들은 굳은 땅이고 잡초에 의하여 3mm~5mm 정도만 흩어 날아가서 사람들은 거름을 먹은 돌은 많이 크고 거름을 먹지 못한 돌은 잘 안 크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한다.

높은 산과 큰 강이 있는 지역은 평야 지대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높은 산의 흩어 바람과 폭우로 산이 무너져(산사태) 강물에 의해 저지대로 수천수만 년간 침식되어 평야 또는 작고 큰 뜰을 이루는 과정에서 땅속에 있는 돌과 바위가 돌출되고 금강산 설악산 울산바위 등이 생겨나니 돌이 크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라고만 볼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십 년 전 인흥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하여 신평2리(당시 재건촌)에 정착하여 이장으로 섬겼던 엄월섭 씨는 이 지역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신평2리 (재건 촌)는 돌이 크는 마을이라며 KBS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2023 고성문화 제10호



문화 탐방기

보석의섬, 제주도로 떠나다 77
(고성문화원 문화탐방)

최선희
수성문화제 홍보이사

고성문화원 문화 탐방기 보석의 섬, 제주도로 떠나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월)~6월 22일(목) 3박 4일간 금년도 2차 35명 고성문화원 회원들이 제주도 문화탐방에 나섰다. 금년도에는 유난히 신청자가 많아 1·2차로 나누어 탐방을 진행하였다.



최선호
수성문화제 홍보이사

고성종합체육관 앞 주차장에 현내, 거진, 간성의 회원들이 관내 관광업체인 금광산고속관광버스에 하나, 둘씩 탑승하기 시작하였다.

함명준 고성군수도 아침부터 일찍 종합운동장에 나와 장도에 오르는 회원들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당부드리는 인사를 하였다.

차량은 출발하여 죽왕면과 토성면에 들러 회원들 탑승 후에 서울 김포 공항으로 향했다.

문화탐방 참가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복장을 착용하였고, 간단한 등산 가방을 챙겼다. 차내에서는 고성문화원 직원들이 문화탐방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위해 간단한 차내 음식을 정성껏 챙겼는데, 고성 해양심층수와 도시락 떡을 간식용으로 준비했으며, 또한 비를 막기 위한 일회용 우비를 준비하였다.

일행은 김포 공항에 도착. Flight ZE223 이스타(Eastar Jet) 항공편에 탑승하여 1시간여만에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제주공항에는 벌써부터 현지 미래 관광버스와 가이드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고성회라는 이름의 가이드는 중년이 훨씬 넘은 세련된 분이라 경험도 많고, 제주에 대해선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말씀씨가 좋았다.

탐방기간 동안 가이드는 제주의 특산품인 오메기떡과, 삼다수를 매일 챙겨 주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우리 일행들은 “오설록”이란 차 재배 단지에 도착하여 깔끔하게 잘 자라

고 있는 차밭을 둘러 보았다. 남쪽 지역이라 기후 조건이 온화하고 잘 맞는지 주변에 수국도 있어 아름다움이 더욱 짙어, 사람들은 모두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가파도(加坡島)를 둘러보았다. 가파도는 수평선과 하나인 듯 나지막한 섬으로 제주의 옛 모습을 간직한 가오리 행태의 섬으로서 우리나라 유인 섬 중 가장 낮은 수평선과 나지막한 평지로 이루어져, 전망대에서 제주 본섬과 한라산, 마라도, 그리고 푸른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신비의 섬, 제주 해상 탐방을 하다

“수바리”라 하는 그 당시 가파도 주민들은 자리돔, 멸치잡이의 포획방식을 발명하여 지금도 자리 잡이 어선을 “요수 바리”라고 한다. 어민들은 노를 저어서 거친 풍랑과 맞서 자리 잡기를 하였으며 인근 모슬포까지 2~3시간 노를 저으며 쌀과 반찬 등을 교환하였다고 한다. 또한, 주택가 담장에는 “해녀의 숨소리”라는 글귀가 있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동그렇게 돌 썰아 바람과 노출을 막아주는 해녀는 젖먹이에게 젖을 물리고, 앞

은 무명에 잠수복으로 갈아입는다. 오로지 바다 한가운데 퇴각만을 의지한 채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나 물질하며 강인한 해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글귀를 보니 이곳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엿볼 수가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말이다.

꽃자왈 숲속 기차여행의 즐거움 또한 좋았었다. 에코랜드 테마파크는 1800년대 증기기관차인 볼트 원 기종을 모델로 영국에서 수제품으로 제작된 링컨 기차로 30만 평의 꽃자왈 원시림을 기차로 체험하는 테마파크이다. 보온, 보습 효과가 높아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들이 공존하는 신비의 숲으로 우리가 기차여행 중 주변의 숲속 철길에서 까투리(뺨) 한 마리가 날아오르기도 했다.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지역주민들이 돌아가며 마을의 역사를 설명한다. 우리 일행이 갔을 땐 여자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었다. 제주 성읍민속마을은 조선조 태종 10년(1410년) 성산읍 고성리에 설치됐던 읍치가 이곳으로 옮겨진 이래 600여 년간 흘러온 유서 깊은 마을이라 했다.

민속 마을답게 곳곳에 옛 초가집이 잘 보존되어 있고, 마을에서 키우던 똥돼지 사육장, 이 마을은 중요민속자료 188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었다고 하며, 1987년도 9월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 고장의 민속 마을인 죽왕면 오봉1리 왕곡마을과 같은 곳이었다.

이 밖에도 우리 문화탐방 일행들은 제주도 농수산직매장, 성산포 유람선을 타고 제주의 앞바다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돌아봤다. 아름다운 경치, 풍경, 그것이었다. 우리고장 동해와는 또다른 느낌의 자연이었다. 필자는 지역사회의 일인으로서 벤치마킹하여 좋은 것은 받아 들이고, 우리고장에 맞게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다.



문화탐방 (제주도)

아무쪼록 건강 또 건강이 최고이다. 비행기 기내에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내려다보니 솜털같이 잔잔히 깔린 구름을 보면서 평온하고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구나 느낌을 받았다.

고성문화

2023 고성문화 제10호



문화활동, 이것저것

효공연 우리가락 한마당 잔치 83

간성향교 성균관 유도회 85
간성지부회장 선출 선거

효(孝) 공연 우리 가락 한마당 잔치 2023년 지역생활 예술지원사업으로 !

고성군 아리아리예술단(단장 엄채란)이 지난 5월 25일(목요일) 오전 11시, 고성문화원 3층 대공연장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孝) 공연 우리 가락 한마당 잔치가 성대히 치뤄졌다.

이날 흥겹게 치러진 공연내용을 보면 강원도 부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향토민요로 태백산맥 동쪽 지역에서 주로 부르고 있는 등부 민요와 정선아리랑을 엄채란 단장이 제일 먼저 부르고, 이어서 경기민요, 장기타령, 잣은 방아타령을 불렀다. 그리고 정병근 단장과 단원들은 고성지역의 장단인 고성사물놀이를 공연했다.



효(孝) 공연 우리 가락 한마당 잔치 공연

사)한국경음악협회 색소폰 1급 지도사 엄인호 씨가 당시는 명작, 당신이 좋아, 미운 사랑 등을 연주하여 앵콜 등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밖에도 자진 난봉가, 사설 난봉가 등 서도민요와 고고 장구 등이 이어졌으며 끝으로 출연자들이 다 함께 무대에 나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기민요, 본조아리랑을 불려, 관객들이 무대 앞에 나와 흥겹게 춤을 추며

한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연 주최자는 코로나19의 무서운 태풍이 지나가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르신들을 모시게 됐다며, 잠시나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항상 건강 하시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했다.



효(孝) 공연 우리가락 한마당 기념촬영

간성향교 성균관 유도회 간성 지부 회장 선출 선거 회장에 김진호씨 당선

고성군 간성향교(전교 황재철)는 지난 2023년 7월 8일 간성향교 현지에서 성균관 유도회 간성지부 회장 선출선거가 있었다. 후보로는 기호 1번 김완식, 2번 김진호 씨가 선거에 출마했다.

이날 선거에는 간성향교 원로회원, 장의, 여성 유림 회원 등 참석하여 간성향교 규정 제16조에 따라 간성향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했는데, 총유권자 50명이 참석하여 49명이 투표, 1명이 기권하여, 기호 1번 김완식 후보가 15표, 기호 2번 김진호 후보가 33표를 득표하여, 기호 2번 김진호 후보가 최고 득표자로 당선되었다.

오전 10시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오후 5시에 종료했으며, 김진호 당선자는 인사말에서 10여 년간 간성향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림의 뜻을 받들어 향교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당선자는 간성향교 제29대 성균관 유도회 간성 지부 회장으로 4년간 일하게 된다.



고성문화



2023 고성문화 제10호

시(詩)편

설달의 노을. 능파대. 89

최형운
고성문화원 회원

능파대. 수바위. 90

김춘만
고성문화원 이사

선달의 노을

최정윤

끝이 없는 시간 속에

해도 가고

달도 진다

영원한 생존도 없지만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선달은

한해의 끝이고

또 한해의 출발점이다

인생의 선달은

한 겨울 한 겨울

차곡차곡 쌓아 올린

연륜의 남가리

가려보고 새겨들고

비우고 낮추며

멀리 넓게 보는

혜안 있어

선달의 노을이 곱게 보인다.

능파대[☆]

최정윤

수 억 년 동안 염풍화[☆](鹽風化)로
빛어진 오묘한 형상
가득품고 있는
화강암 바위섬

오래 전
몸 덩어리 반이나
뜯기여
온전치 않지만

지질 명소로
수많은 발길에게
신비로움 선사하는 육계도(陸繫島)[☆]

넘실거리는 파란 물결 위
피어오른 하얀 물보라
그 위로 사뿐사뿐 걷고 있는
소복단장한 여인이어라

☆능파대: 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 고성군4대명소중1개소

☆염풍화: 소금에 의한 풍화

☆육계도: 육지와 섬을 연결한 육계사주로 육지와 연결된 섬

능파대

김 춘 만

아름답다는 건
이런 것이다

숫구침과 가라앉음이 하나
달리는 것과 멈춤이 하나

깎아짐과 세워짐의 절묘함
파여지고 갈라짐의 조화도 같이

파도가 빔어낸
오만가지 형상들이
홀홀 해탈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그마한 돌섬

〈약력〉

김춘만 (고성출생)
월간문학으로 등단
시집 「두타연 고양이」 외 2권
국가지질공원해설사
고성문화원, 고성문화재단 이사

수바위

김춘만

화암사 아래
큼직한 뭉뚱이는 수도 중
잔잔한 미소로 꽃을 피운다

빼어난 모습이라서가 아니라
큼직한 불웅덩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끼니를 이을
곡식을 내어주었다는
따뜻한 이야기 품고 있기에
수(德)바위라 부른다

바위가 꽃을 피우니
천년이 지나도 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 잊혀지고
저런 사람 잊혀지지만
따뜻했던 사람 두고두고 생각난다

가슴에 박혀
자꾸 꽃으로 피어난다
수바위가 그렇다.

고성문화

2023 고성문화 제10호



향토문화예술

향토문화예술 지상 갤러리 93

향토문화예술 지상 갤러리

화병모란도
민화 강유환



화병모란도
민화 박순득



청엽1
민화 문미화



청엽2
민화 문미화



연화도
민화 봉수목



연화도
민화 배문숙



섬 끝집
서양화 최혜경



해바라기
서양화 주운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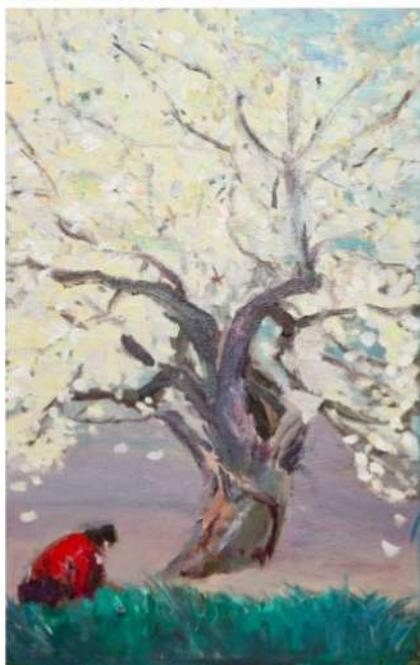


으아리
서양화 최향미



오수

서양화 한순자



오얏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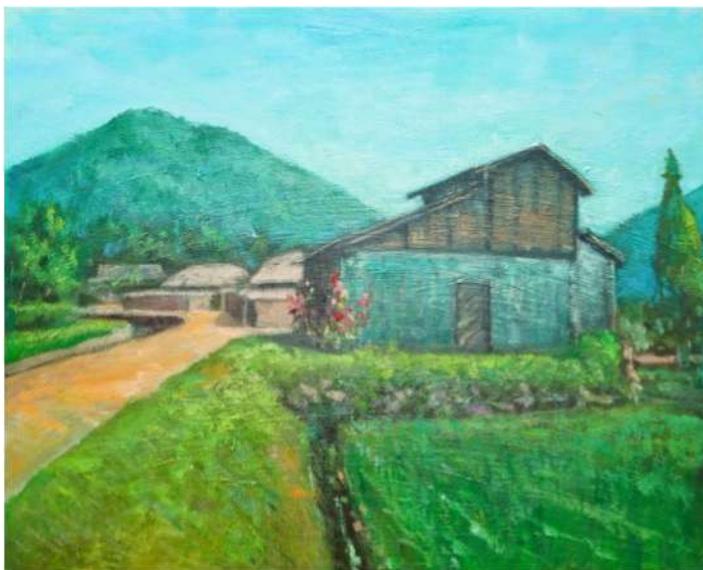
서양화 김성심



들꽃처럼
서양화 김홍숙



열정
서양화 조은주



오봉 방앗간
서양화 정순득



명파리 친구
서양화 이창복



썩부쟁이꽃
한국화 이선경



대대리의 소나무
한국화 함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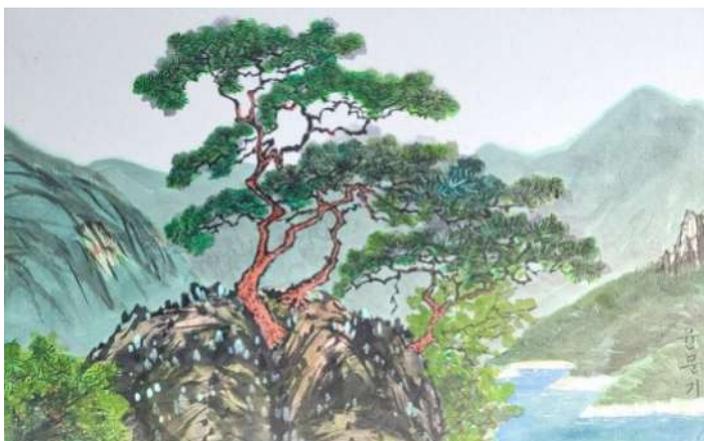
화진포의 여름이야기
한국화 이승규



등산로에서
한국화 장정옥



봄이야기
한국화 홍순혜



등산길에서
한국화 윤문기



용대리 폭포
한국화 권성준

장마비크친풀짜기 숲나무그늘에 시원할기
은생기네산구름은알렁이며무명모자벗
고시냇물은흐를러가며가야금연주하네강
가에는햇빛부럽게쏟아지고푸른하늘은먼
산봉우리위에높네깨끗한이끼길청려장
깊고속세의마음씻어버리네

운곡원천석선생의시
혜란정매화

운곡선생시
한글서예 (혜란)정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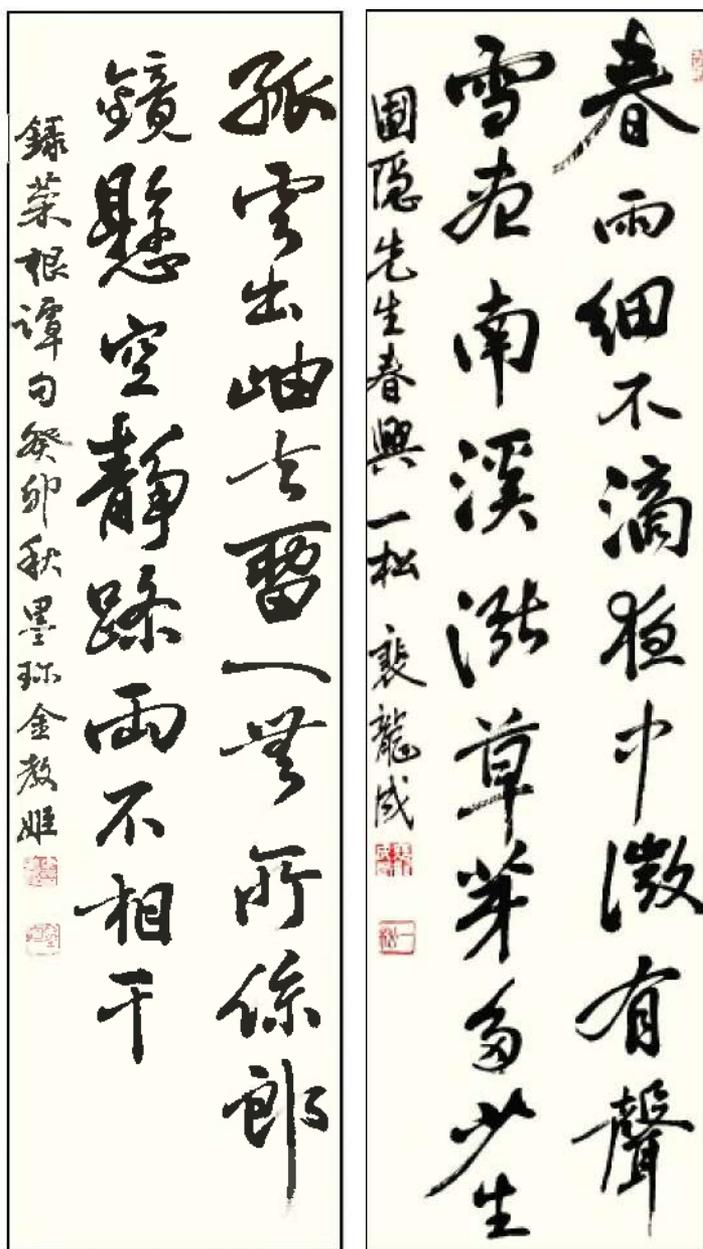
아침에 잠에 서 깨어나 날 수 있음은 감사하러 어체를 위하
 여 오늘을 살지 말고 이며 뇌이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
 구오이 나날과 비박하지 말며 뇌이를 행만치 하고 만즉
 하오늘일라 칭신천이로다 늘 칭신천이로다 밋지 말라
 丙寅年(1926)가을 오늘에 문창례의 행기대신에 문창례의 문창례

오늘을 위한 기도
 한글서에 문창례

仁者莫大於愛人
 善不積不足成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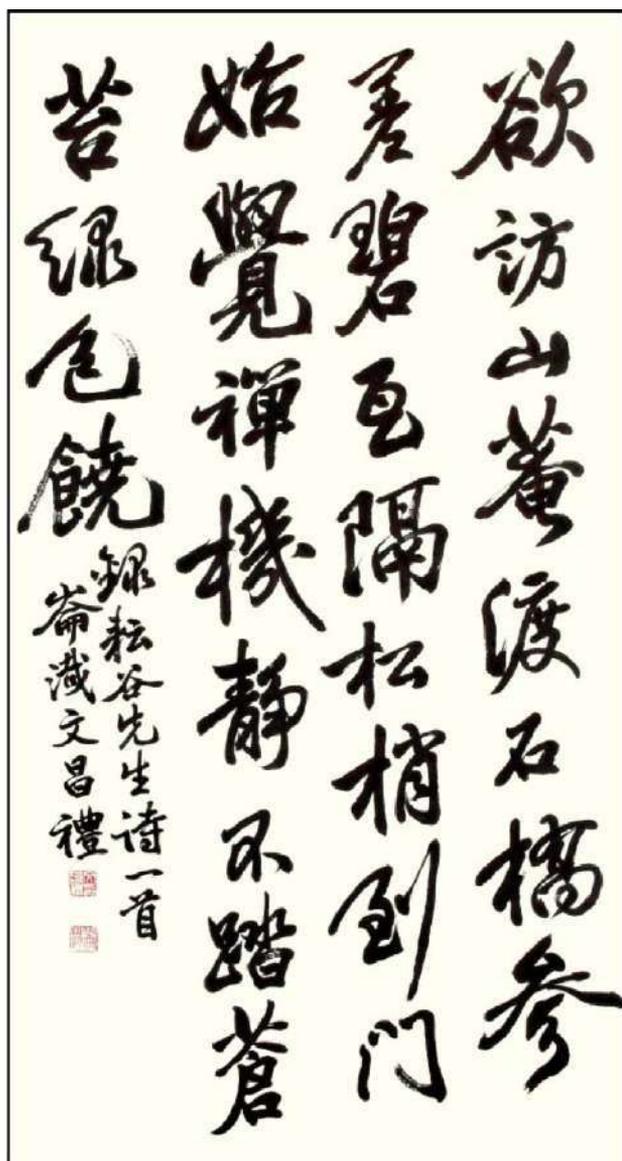
乙卯孟秋 錦波 金福順

논어 중에서
 한문서에 김복순



채근담구
한문서에 김교희

포은 선생의시
한문서에 배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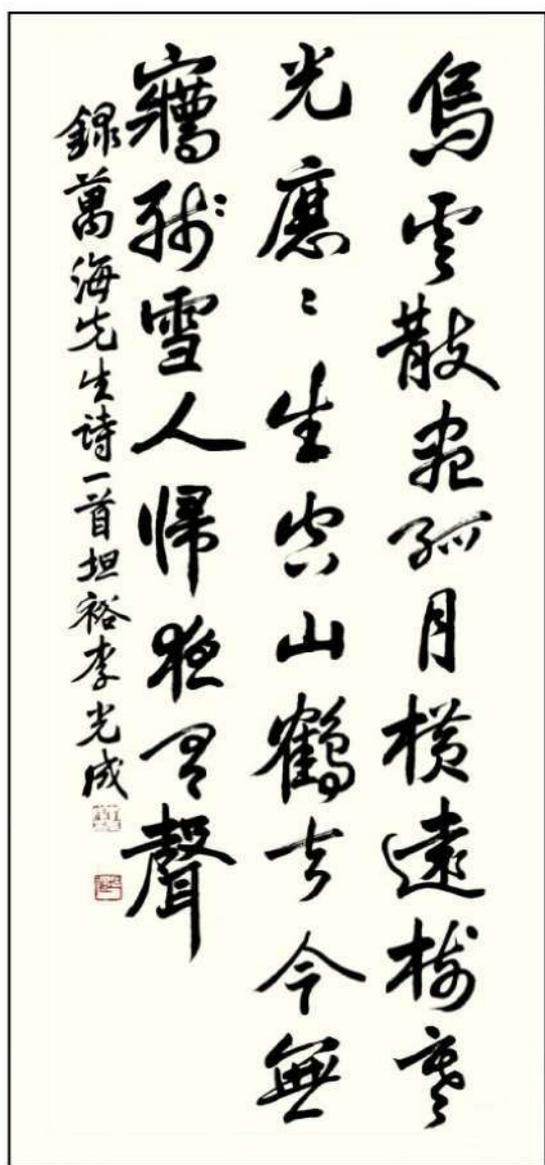


만해선생의시
한문서에 함상옥

草深山路絕經過只
看斜暉明遠波忽有
高軒勞玉趾光生物
像政森羅

錄耘谷先生詩
安堂尹炳國

운곡 선생의시
한문서예 윤병국



만해 선생의 시
한문서에 이광성

烏雲散苑孤月橫
 遠樹寒光應生空山
 鶴古今無寤殊雪人
 歸夜有聲

錦萬海先生詩
 東江咸尚玉

만해선생의시
한문서예 함상옥

水流而境空聲得處墮見
 疾之趣山高而雲不碍悟出
 有入學之機

錦葉根譚句癸卯秋
 函潭沈玉美

채근담구
한문서예 심옥미



2023 고성문화 제10호



고성문화원

고성문화원소개

115

설립 및 지원근거

주요기능

역대문화원장

임원 명단

고성문화원 걸어온 길

회원가입



고성문화원 일반현황

설립 및 지원근거

- 고성문화원 설립 : 1984. 1. 6.(초대원장 : 함병철)
설립근거 :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
- 지원근거 :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주요기능(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 향토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

역대 문화원장

- 제1대, 제2대 : 함병철 원장 (1984 ~ 1992)
- 제3대, 제4대 : 함희조 원장 (1992 ~ 1998)
- 제5대, 제6대 : 이병찬 원장 (1998 ~ 2004)
- 제7대, 제8대 : 황연인 원장 (2004 ~ 2012)
- 제9대 : 이진영 원장 (2012 ~ 2016)
- 제10대, 제11대 : 주기창 원장 (2016 ~ 2024)

고성문화원 임원명단

성명	직책	주소	연락처
주기창	원장	간성읍 수성로 84번지	010-3563-3154
남영자	부원장	간성읍 교촌길146-18	010-2112-1604
윤영락	부원장	거진읍 거탄진로 135(메리츠화재)	010-5366-3200
김성희	이사	거진읍 태봉동길 3	010-5374-3810
김철수	이사	토성면 인흥3길 7-10	010-5115-1452
김춘만	이사	죽왕면 동해대로 6185	010-8761-9516
김진호	이사	현내면 모정1길11	010-3364-6215
문명호	이사	거진읍 거탄진로 138	010-4524-1172
박세진	이사	거진읍 거탄진로 159-1	010-2284-3798
정봉순	이사	죽왕면 삼포리 민박촌 1길 2-1	010-3396-5724
우광문	이사	간성읍 간성로69-1 2	010-7281-3593
윤선준	이사	간성읍 간성북로 7번길 49	010-5377-2171
윤택규	이사	간성읍 꽃내마루길 20-20	010-2371-2303
이영일	이사	거진읍 거진길 40	010-3891-6819
이용하	이사	현내면 대진3길 23-12번지	010-9042-2669
이철균	이사	간성읍 간성로 89-13	010-4211-2286
이춘우	이사	토성면 천진리 148-1	010-8795-2421
이학봉	이사	현내면 한나루로 140-1	010-6372-0527
장정희	이사	간성읍 스위트엠 103동 1601호	010-5364-5193
전연표	이사	간성읍 간성시장2길 11	010-5365-4433
전제동	이사	간성읍 간성북로57번길 1-4	010-6378-2528
최봉림	이사	간성읍 간성로 52번길 9	010-5374-5497
최세현	이사	거진읍 진부령로 2871	010-6370-2653
한선제	이사	죽왕면 삼포리 239-36	010-5363-0023
한창영	이사	간성읍 스위트엠 102동 1903호	010-5373-2156
함상옥	이사	간성읍 간성북로 17번길 7	010-5274-2025
홍순홍	이사	간성읍 간성로 89-7	010-2029-2126
홍종철	이사	거진읍 거진길28-1	010-5379-2720
황광울	이사	간성읍 금수리1길 15-1	010-2023-2091
황재철	이사	간성읍 수성로 71-10	010-6271-3300
이선국	감사	간성읍 건봉사로 391-38	010-6605-2425
이성수	감사	간성읍 간성로 61-5	010-7149-2760

Our History

(고성문화원) 걸어온 길

1981. 01.06 ● 설치허가 490호 (문화공보부장관)
대표자 : 함병철(초대회장)
이사 : 함병철, 이백규, 김경명, 이귀림, 이복수,
최달구, 함정균, 함형운.

1984. 01.06 ● 사무국장 : 함형운 임명

1985. 03.01 ● 고성군청 별관 2층 증축, 사무실 이전

1987. 01.06 ● 고성군문화의집 1층, 사무실 이전

1988. 01.06 ● 고성문화원장 : 함병철 유임
사무국장 : 최형기 임명
12.20 ● 영상음악 감상실 개설

1992. 06.22 ● 함희조 문화원장 취임

1994. 07.05 ● 부원장 이병찬, 심규섭(취임)
08.09 ●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법인 설립인가.

1996. 06.28 ● 임원취임 승인
(원장 : 함희조, 부원장 : 권오진, 이병찬)
● 유임이사 : 이성식
● 신임이사 : 김대현, 윤용수, 권오훈, 김영태
김성호, 조정현.

	08.10	● 간사 최윤정 채용(현, 과장)
1998.	06.20	● 문화원장 함희조 사임(권오진 부원장 직무대리 임명)
	07.13	● 이병찬 문화원장 취임
2001.	12.30	● 사무국장 최형기 퇴임
2002.	01.01	● 사무국장 남병욱 임명(공개채용)
2004.	04.01	● 고성문화원 정관변경(제14조 임기제한)
	06.29	● 제7대 황연인 문화원장 취임
2006.	07.01	● 사무국장 박명재 임명 (공개채용)
2008.	06.29	● 제8대 황연인 문화원장 유임
2012.	08.29	● 제9대 이진영 문화원장 취임
2014.	05.20	● 사무국장 박명재 퇴임
		● 사무국장 김장민 임명(공개채용)
2016.	06.29	● 제10대 주기창 문화원장 취임
2018.	02.01	● 팀장 김미선 공개채용
2020.	06.29	● 제11대 주기창 문화원장 연임
2022.	10.01	● 주임 김미선 공개채용
2023.	01.01	● 주임 신유진 공개채용



고성문화원 회원 모집 안내

문화원은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하며, 지역문화교류, 사회교육등 군민의 문화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귀하를 고성문화원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문화원이 하는 일?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5.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

■ 문화원의 회원이 되시면...

1. 정기 간행물 “고성문화”와 본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책자를 받아 볼수가 있음.
2.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에 우선적으로 초청받게 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자료(도서 등)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4. 회원자격으로 문화활동에 참여 할 수가 있으며 문화원 운영 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 5 기타 의견 제시 등.

고성문화 제10호 (2023년)

인쇄일 : 2023. 12.30

발행일 : 2023. 12.30

발행인 : 주기창(고성문화원장)

기획인 : 김장민(고성문화원 사무국장)

편집인 : 최선호

문화원 전화 : 033-681-2922

팩스 : 033-681-2928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71-7

[비매품]

이책은 고성군비 지원으로 발행되었음.

고성문화원 www.goseongcul.com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71-7

TEL : (033) 681-2922



江原特別自治道
高城文化院

www.goseongcul.com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71-7

TEL : 033) 681-2922